

남가주 '소칼 하비스트 집회' 7천여명 예수 영접

**‘예수 혁명’ 그렉 로리 목사
 “주님은 변화시키는 분”**

지난 주말,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시의 혼다 센터에서 열린 제34회 소칼 하비스트 크루세이드(SoCal Harvest Crusade) 전도 집회에서 7천여 명의 참석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이 행사는 LA 동부 리버사이드 시의 대형교회 하비스트크리스천펠로십의 그렉 로리(Greg Laurie) 담임 목사가 주최했다.

이 집회에는 3만2천 명 이상이 참석하였으며, 21만5천여 명이 실시간 온라인으로 집회를 시청했다. 올해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바꾸신다”라는 주제로, 애인절 스타디움이 아닌 혼다 센터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매년마다 소칼 하비스트는 신앙을 처음 접하거나, 믿음을 재발견한 사람들이 삶의 가장 큰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얻도록 돕고 있다.

CCM 가수이자 음악가인 필 위컴(Phil Wickham), 패션워십밴드(Passion worship band), 가수 타야(Taya)의 예배 공연과, 로리 목사의 “예수님과 당신”이라는 주



애너하임시의 혼다 센터에서 제34회 소칼 하비스트 크루세이드 전도집회가 개최되었다. ©하비스트크루세이드 페이스북

제로 설교가 진행되었다. 2일에는 하비스트 워십(Harvest Worship)과 그래미상을 수상한 가수인 크리스 톰린(Chris Tomlin)과 마이클 W. 스미스(Michael W. Smith)의 공연이 이어졌다.

로리 목사는 무대에 올라 지난 30년 동안 자신이 이끌었던 121회 이상의 하비스트 전도 집회에 대해 회고했다.

그는 참석자들에게 “우리는 전 세계에서 121번의 대형 전도 집회를 개최했다. 또 6백만 명에게 직접 복음을 전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60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신앙고백을 한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하비스트 크루세이드는 1990년대부터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에서 진행되었으며, 8백만 명이 직접 참석하고, 전 세계의 수백만 명이 생중계를 시청했다.

로리는 참석자들에게 “오늘 밤은 여러분을 위한 밤이다. 특히 아직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다”며 “여러분이 내가 수년 전에 체험한 것과 비슷한 경험을 하시길 바란다.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 내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밤 혼다 센터에 와 계시며,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열면, 오늘 밤 당신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라며 모든 기독교인에게 “반드시 해야 할 4가지”를 당부했다.

로리는 “첫째, 성경을 읽으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매일 성경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둘째, 기도를 하라. 기도는 단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며 “기도는 당신의 문제와 필요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그분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여러분이 주님과 나누는 아름다운 교통”이라고 했다.

이어 “셋째, 교회에 가라. 교회는 우리가 영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는 당신이 필요하다”며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해 보라.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을 누군가에게 전하라”고 권면했다. 김유진 기자

“동성혼 혐의 제작 거부 디자이너 승소, 가장 중요한 승리”

전 판사이자 신학교 학장 필 진 평가

최근 자신의 종교적 신념으로 동성혼 혐의 제작을 거부했다가 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로 소송에 휘말렸던 한 여성 디자이너가 승소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노스캐롤라이나주 법원에서 22년 동안 판사직으로 근무한 후 현재 남부복음주의신학교 학장으로 일하고 있는 필 진(Phil Jinn)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종교 자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다음은 필 진 판사가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게재한 칼럼의 주요 내용이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의 열렬한 지지자들에게는, 분명 이는 기쁜 일이 될 것이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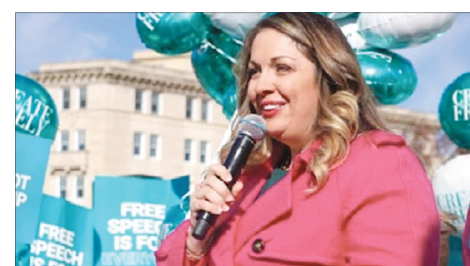
는 단지 심각하게 중요한 사건들의 결과 때문만이 아니라, 대법원의 보수적인 대법관 6명이 보여 준 헌법의 선한 논리와 엄격한 구조 때문이다.

콜로라도주에서 비롯된 ‘303 크리에티브 대 엘레니스’ 사건은 수십 년간의 종교 자유에서 가장 중요한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콜로라도주는 기독교인 웹 디자이너에게 자신의 신앙에 반하는 동성혼 기념 웹 페이지 제작을 강요하려고 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상당히 성공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

고서치 판사는 이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리며 작성한 다수 의견에서 “이 사건에서 콜로라도주는 한 개인에게 ‘주의 관점에는 맞지만, 대단히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그녀의 양심에

는 맞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강요하고 자 했다. 그러나 강요가 아닌 관용이 우리 국가의 답이다. 수정헌법 제1조는 미국을 모든 이들이 정부의 요구가 아닌 자신의 원대로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부유하고 복잡한 곳으로 생각한다. 고서치 대법관의 논리는 정확하며, 수정헌법 제1조가 표현의 자유와 종교적 사교 및 행동의 자유를 확립하려는 미국 건국자들의 의도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음을 실현하는 독창적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 지금으로서는 최소한 동료 미국인들과 세계 앞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다는 사실에 용기를 내야 한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를 대신해 심판 가운데 죽게 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



웹사이트 디자인 회사 ‘303 크리에티브’ 대표인 로리 스미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지 않음으로 이 순간을 헛되이 보내선 안 된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올 수 있다”는 메시지는 2천 년 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현실적이며, 남부복음주의신학교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긍정적으로 응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미국을 보존해 달라는 것이다. 강혜진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전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023년 내박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혜택 / 30% Tax Credit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 설치비 없고, Zero Down (1년 뒤부터 Payment)
 ◎ 전기료 70~80%절감 (전기차 사용도 무료)
BTS SOLAR DESIGN 213.500.8000



www.marhlaw.com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변호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변호

실력
 문제의 핵심이슈 파악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

정성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

책임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 의뢰인과의 대화 청구 활짝 열림

신뢰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

상법/부동산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전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뱅크럽시
 뱅크럽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선택해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대면·전화상담 예약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 a x : 213.487.9484 marhlaw@yahoo.com
 Main : 700 S. Flower St., #1000 LA, CA 90017
 3435 Wilshire Blvd., #2700 LA., CA 90010

(원) 마동환 변호사 그룹 대표
 (현) 국제이비스 USA 이사장
 (전) 남가주 교외협의회 고문 변호사
 (전) 제미발행가협회 고문 변호사
 (전) 중부상공회의소 이사장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디카시인협회 | 금주의 시



어쩌다 너 홀로

그런데 애야
너는 이곳에
왜 혼자 있는거니?
친구들로 부터 버림 받은 거니?
아니면 친구들이 싫어서
여기서 홀로
꽃을 피우고 있는거니?

-글: 사진: 최순길-

한인어린이회 회장
테레사 엄 목사 소천

한인어린이회 회장(창설자) 테레사 엄 목사가 지난 6일(목) 오후 5시 지난 6일(목) 오후 5시 15분 굿사마리아탄병원 ICU 20호실에서 향년 89세로 소천했다.
장지는 할리웃 포레스트론 공원묘지로 결정됐으며 천국환송예배는 오는 18일(화)로 잠정 예정 되어 있다.
고인은 1992년 LA 한인타운에 한인어린이회를 창설한 이래 '무궁화 백일장'과 '태극기 그리기 대회'를 주최하는 등 지난 31년간 한인어린이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사업에 전력을 다해왔다. 김민선 기자 문의) 213-380-1112

센터메디컬 그룹 건강세미나
'시니어 여성의 골다공증'

제 8회 센터메디컬 그룹 건강세미나가 풀러튼 센터메디컬 클리닉 초대 주치의 조이스 리 박사(가정의학과)를 강사로, 오는 21일 오전 11시부터 순복음제자교회(905 S Euclid st. #109 Fullerton CA 92832)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시니어 여성의 골다공증'으로 다양하고 유익한 의학 정보를 들려준다.
센터메디컬그룹과 오렌지카운티 여성 목사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는 선착순 예약으로 20명의 시니어 여성들을 초대한다. 예약 전화 714-800-3168 한주디 기자

미주장신대 나승필 박사 신간
『창세기 1-11장의 역사-과학적 조명과 예수의 복음』 출간

미주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나승필 박사가 집필한 신간 『창세기 1-11장의 역사-과학적 조명과 예수의 복음』이 CLC(기독교문서선교회)에서 출간됐다. 저자인 나승필 박사는 현재 독일에서 유럽의 난민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이상명 박사(미주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는 추천사를 통해 “독자는 이 책의 페이지마다 창세기 원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내러티브를 오가며 그들의 상관관계를 진지하게 탐문하는 저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때로는 성경 언어(문법), 역사와 과학의 주요 데이터를 가져와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저자의 능숙함도 이 책을 읽는 묘미를 더한다”고 평했다. 저자에 대해서는 “독일에서 공학으로 학문 여정을 시작한 저자는 조직신학, 성서학과 선교학을 전공한 실천적 신학자이다. 현재 유럽을 무대로 국제 난민 선교와 국제 다민족 목회를 하면서 신학교수로도 사역하고 있는 저자는 테오리아(theoria)와 프락시스(praxis) 사이의 경계나 구분 대신 조화와 일치를 추구하는 통전적 신학자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저자는 원역사를 다룬 창세기 본문에 대한 문헌연구나 고등비평적 해석을 지양한다. 저자는 창세기 1-11장으로부터 선별한 다양한 주제와 그로부터 도출한 여러 의미가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과 어떻게 연결되어 구원의 완성으로 이어지는지를 탐색한다. 이 책은 바로 이 과제를 해결하려고 떠나는 저자의 진지한 신학 여정을 보여준다”면서, “창세기 원역사를 토대로 예수 복음을 프로스펙트(prospect)하거나 반대로 예수 복음의 빛에서 창세기 1-11장이 갖는 의미를 리트로스펙트(retrospect)하기를 원하는 독자라면 이 책을 신학 여정의 동반자로 삼으실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김의원 박사(전 총신대학교 총장, 현 AETA 대표)는 “저자는 창조 기사와 원역사를 실제 역사와 과학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시각을 독자들에게 제공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창조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창조적 과학이나 성경적 과학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도외시하고 인지하지 못한 채 피상적인 믿음으로만 접근하여 스스로 회의의 벽에 부딪히고 있



다’라고 지적한다. 다른 한편, 그는 무신론주의자들과 진보주의 신학자들이 근거 없는 편집, 조작, 추가, 결집, 더 나아가 타종교와 이방 신화적 해석을 도입하여 성경을 고대 시대의 종교적 표현으로 국한하면서 성경 진리를 왜곡시켰다고 강렬하게 비판한다. 저자가 언급하듯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은 성경 전체를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창세기의 원역사인 1-11장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이와 밀접하게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반듯이 필요하다”고 서평했다. 토마스맹 기자

한국 최초 선교사 원두우 박사 손자
원득한(리처드 언더우드) 장로 장례식 엄수



고 원득한 장로(리처드 언더우드)

원득한(리처드 언더우드) 전, 서울외국인학교 교장이 지난 달 25일 오전 10시에 미국 일리노이 어바나시에 소재한 자택에서 심부전으로 소천했다. 향년 96세. 장례식은 8일(토) 오후 1시, 샴페인-어바나한인교회(담임목사 함중헌)에서 엄수됐다.
특히 미국 교회가 아닌, 샴페인-어바나 한인교회에서 천국환송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리처드 언더우드가 소천하기 이틀 전 샴페인-어바나한인교회 함중헌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와, 자신의 가문이 한국을 미국보다 사랑했기에 함중헌 목사에게 장례식을 부탁했기 때문이다.
천국환송예배는 리처드 언더우드 장로의 가족, 친지, 동료 외에도 샴페인-어바나 한인교회 전교인이 참여하여 축제와 같이 진행됐다. 이날 예배는 리처드 언더우드 가족, 친지의 추모의 시간을 통해 고인의 행적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으로 시작됐다. 함중헌 목사는 고린도전서 15장 51 - 58절을 본문으로, ‘부활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제하의 설교 말씀을 통해 “리처드 언더우드 장로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주 안에 우리도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라면서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을 믿으며 우리도 믿음 생활 가운데 승리하자”고 유가족들과 참석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
천국 환송예배 후 유가족, 참석자들은 샴페인-어바나한인교회 Korean Mission Center에 모여 고인의 삶을 추모하는 리셉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한국 선교의 선구자인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1859-1916)와 릴리아스 호튼 언더우드(1851-1921)의 손자이자 호레이스 호튼 언더우드와 에텔 반 왜건 언더우드의 아들인 리처드(딕) 언더우드의 유족으로는 아내 캐롤 러즈 언더우드, 4명의 자녀 프레더릭, 마릴린, 데이비드, 엘리자베스, 그리고 손자 9명, 증손녀 1명, 여동생 그레이스 언더우드 하크니스가 있다.
1927년 한국의 서울에서 출생한 리처드 언더우드는, 그의 어머니가 1912년에 초대 선생님이었던, 서울 외국인 학교에서 정식으로 교육을 받았다. 1942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송환된 그는 브루클린의 아델피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해밀턴 칼리지에서 학사 학위를, 컬럼비아와 터거스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리처드 언더우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와 한국 전쟁 동안에 미 육군 전략국(Of-



원득한 장로(리처드 언더우드) 천국환송예배를 인도하는 함중헌 목사

ice of Strategic Services)에서 복무했다. 그는 한국 전쟁을 끝낸 휴전 동안 통역관으로 그의 큰 형 호레이스와 함께 근무하여 Bronze (Oak Leaf Cluster) 훈장을 수여받기도 했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 그는 미국 한국재단(America Korea Foundation)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이후 미국 장로교회의 한국 선교사로 임명되며 1961년부터 1992년까지 서울 외국인 학교 학교장을 은퇴하고 미국 일리노이주 어바나로 거처를 옮기며 지역 사회와 교회에서 활동했으며 샴페인-어바나 한인 교회 고문으로 활동했다.
적박한 현실 가운데 열정을 다해 조선의 교육과 의료사업을 위해 헌신했던 언더우드 가문. 특히 4대에 걸쳐 한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며, 교육 의료 정치 및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의 근대화와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한주디 기자

주순영 선교사 미주성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시는가 누가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요 4:10)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탈북 하여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전하고 있는 주순영 선교사가 미국 뉴욕과 LA를 방문하여 간증집회를 갖습니다. 신앙의 큰 도전을 전하여 줄 간증집회에 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 뉴욕간증집회 일정
7월 14일(금) - 복음과영성교회(이태진목사)
7월 16일(일) - 빙 햄턴교회(김태수목사)
초코넛미국감리교회

☆ LA간증집회 일정
7월 21일(금) 오후 7:30 -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
7월 22일(토) 오전 6:20 -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
7월 23일(일) 오후 1시 - 오렌지힐교회(담임 백창호 목사)
7월 24일(금) - GBC미주복음방송 보이는 라디오 출연
7월 29일(토) 오전 6시 -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
7월 30일(일) 오전 8시, 오전 11시 - 한마음제자교회(담임 광부환 목사)

문의 : 기독교일보 (213)739-0403, (213)434-1170

하나님 향한 뜨거운 찬양 '피아워십 찬양집회' 개최

월드미션대학교, 7월 20일(목)
오후 5시 세미나·7시 찬양집회

깊이 있는 영성과 뜨거운 찬양으로 한국 CCM계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피아워십(FIA Worship)이 오는 20일 남가주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에서 찬양세미나와 목요 찬양집회를 진행한다.

피아워십은 3년 전부터 목요 찬양집회를 시작해 현재는 매주 목요일 인천 한국장로교회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 특별히 유튜브 총 조회수가 5천6백만을 넘을 정도로 온라인을 통해 사역의 지경을 넓혀 가고 있는데, 유튜브 구독자가 12만 명을 넘고, 조회수 100만을 넘는 곡들도 쉽게 볼 수 있을 만큼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피아싱어즈, 피아밴드, 피아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콘텐츠 제작 및 보급 등에도 앞장서고 있다.

피아워십의 피아는 FAITH IN ACTION을 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행동



피아워십은 매주 목요일 인천 한국장로교회에서 찬양집회를 갖는다 ©피아워십

으로 실천하고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피아워십의 신앙 정신을 담고 있다. 피아워십은 35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더인 이동선 전도사는 분당우리교회(담임 이찬수 목사)에서 찬양 인도자로 섬기고 있기도 하다.

피아워십이 인도하는 이번 월드미션대학교 찬양세미나와 찬양집회는 25명의 피아워십팀이 참여하며,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등록비 없이 참석할 수 있다.

이동선 전도사는 "남가주의 예배자들을 비롯해 찬양 사역을 하는 많은 사역자분들, 찬양사역을 꿈꾸는 모든 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며 "특별히 찬양팀 세미나에서는 악기, 보컬, 영상, 미디어까지 그동안 피아워십이 누려온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고 초대했다.

피아워십은 본질에 집중하는 사역 단체다.

음악적 기교보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예배에 목숨을 건다. 2시간 동안 진행되는 목요찬양집회에는 찬양과 말씀, 기도가 균형을 이루고, 참석자들의 연령대도 1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하다. 전 세대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찬송가부터 CCM까지 다양한 장르의 곡을 편곡해서 부른다.

2019년 2월 발표된 첫 번째 싱글 '믿음의 여정'에 이어 작곡가 손경민이 참여한 두 번째 싱글 앨범 '하나님의 부르심'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가수 자두, 배우 진태현 박시는 부부, 전 워너걸스 멤버 선예 등과도 콜라보레이션 찬양 콘텐츠를 제작해 네티즌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한편 피아워십은 월드미션대학교 찬양집회 이외에도 7월 19일(수) 오후 7시 30분 토랜스제일장로교회, 7월 21일(금) 오후 7시 30분 ANC온누리교회, 7월 22일(토) 오후 7시 30분 나성영락교회에서 찬양집회를 인도할 예정이다. 7월 23일(주일)과 24일(월)에는 라스베가스 비전교회에서 지역 연합 찬양집회와 찬양세미나를 진행한다. 김동욱 기자



미성대학교 학위수여식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박사, 이하 AEU) 제 21회

학위수여식이 지난 7월 8일(토) 오후 4시 유니온교회 (담임 구자민 목사)에서 현장과 온

미성대학교 제21회 학위수여식 가져

라인 병행으로 열렸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 학사 1명, 목회학 석사 5명, 상담학 석사 1명, 리더십 석사 6명, 행정경영학 석사 2명이 학위를 받았다. 학위수여식에 앞서 열린 예배는 AEU 행정부총장 조성호 목사의 사회 아래 미주성결교회 총무 김시은 목사의 기도, 이사장 구자민 목사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부르신 곳으로'라는 제목의 말씀 선포 순으로 이어졌다.

학위 수여식은 교무처장 신종석 박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학위 수여식 및 시상과 이상훈 총장의 훈화와 파송기도, 류종길 명예총장과 미주성결교회 총회장 허정기 목사

의 축사가 이어졌다. 특별히 이번 학위 수여식에서는 그동안 AEU 설립 이후 변함없이 기도와 재정으로 참여하였으며, 캄보디아 선교, 몽고 선교에 헌신한 윤희란 교수를 명예박사로 추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학위를 수여했다.

이날졸업생들은 모든 학위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된 것을 감사하며 교수들과 가족들에게 고마움의 마음을 전했으며 온라인 강의로 참석해온 해외 거주 학생들도 온라인을 통해 졸업식에 참여하며 기쁨과 감사를 나누었다.

토마스맹 기자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몽골 선교 위해 기도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 신용)가 지난 1일(토) 갈보리선교회(담임 심상은 목사)에서 418차, 2023년 7월 월례조찬기도회를 가졌다.

이번 조찬기도회에서는 몽골 현지교회인 새생명교회 조수아 몽흐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몽흐 목사를 소개한 심상은 목사(OC교회 협 회장)는 "몽흐 목사님은 몽골 징기스칸의 후예로 이제는 중앙아시아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으로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날이 오도록 기도하는 몽골 현지 목사이다. 현재 몽골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전도회연합회 회원들과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 초대했다"고 소개했다.

조수아 몽흐 목사는 "몽골 고위 공무원인 아버지와 독실한 불교신자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불교 신앙과 불교 교육을 받고 자라다가, 학창시절에 몽골어도 모르는 어느 선교사가 전해준 전단지를 받고 집회에 참석했다가 예수를 만나게 됐다. 이후 다른 청년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고 전하고 "그 선교사는 나의 영적 아버지인 나성영교회 출신 최순기 선교사이다"라고 자신의 신앙적 배경을 소개했다.

몽흐 목사는 최순기 선교사의 전도로 기독교로 개종하고 목회자가 되어, 최순기 선교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사와 함께 몽골에서 새생명교회를 개척했다. 최순기 선교사가 북한선교를 위해 헌신하자 새생명교회를 맡아 목회하며 주변에 6개 교회를 개척했다. 기쁨소 최순기 선교사의 말

인 "누군가 기도하면 누군가 산다"는 제목으로 몽골현지에 새생명교회가 세워지게 된 이야기와 몽골 교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쓴 책을 한국어로 펴내기도 했다.

기도회는 신용 회장의 사회와 한성준 부회장의 대표기도에 이어 조수아 몽흐 목사가 설교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과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 OC 지역사회와 교회, 목회자를 위한 기도, 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에 이어 연합회의 하반기 사역을 위해 기도했다. 합심기도 마무리기도는 김도영 이사가 맡았고, 심상은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토마스맹 기자

SUMMER SPECIAL SALE

차종에 따라 36개월까지 0%이자가

NEW 2023 HYUNDAI IONIQ 5 SE

0%

APR Financing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36개월까지 할부 가능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Up to 36 Months

NEW 2023 HYUNDAI Ioniq 6 SE

NEW 2023 HYUNDAI TUCSON SE

NEW 2023 HYUNDAI SantaFe SE

Lease Special

\$279 10,000 miles/year
MSRP \$35,995 due at 24 Months lease signing

\$299 10,000 miles/year
MSRP \$34,995 due at 24 Months lease signing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1-888-644-7114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제4차 로잔대회 영적 대각성의 두 날개 '말씀·기도운동'

'2024 서울 제4차 로잔대회'를 준비하는 한국교회와 '말씀운동'과 '기도운동'을 펼쳐 나간다.

한국준비위원회(위원장 유기성 목사) 실행총무 김홍주 목사는 14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714 기도대성회'를 앞두고 은누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목사는 "714 기도대성회는 제4차 로잔대회를 준비하며 한국교회 영적 회복을 위한 두 가지 중요 프로젝트 중 하나"라며 "첫 번째는 '말씀운동'이다. 복음운동은 말씀운동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했다.

이를 위해 한국준비위는 제4차 로잔대회 본문이 '사도행전'임을 고려해 1년간 한국교회가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해 나간다. 개교회 성향이 강한 한국교회가 장기간 같은 주제로 영적인 초점을 맞춰나가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김 목사는 "한국교회 역사상 처음 시도하는 일이라 매우 기대된다"고 했다.

그는 "두 번째 프로젝트는 '기도운동'이라며 "영적 회복과 부흥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야만 가능하다.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과 세계복음화의 과업도 철저하게 성령님이 주도하고 일으키시는 운동"이라고 했다.

이어 "제4차 로잔대회를 준비하면서 한국준비위는 전국적으로 45개 거점 교회를 정하고 1천여 교회들이 연합해 714 대성회를 개최함으로써 기도운동의 시작을 알리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와 은혜를 구하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약해지는 것은 순전한 복음, 오직 십자가와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첫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복음에 대한 자신감과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세를 회복해야 한다"고 전했다.

제4차 대회는 222개국에서 총 5천여 명의 전 세계 리더들이 현장에 참석하며, 1명당 2



제4차 로잔대회 한국준비위원회가 최근 경기도 광주시 소망수양관에서 중보기도 담당자 모임을 열었다. ©한국준비위

명의 중보기도자를 세우는 '아론과 훌'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이와 관련 714 대성회에서는 중보기도 서약식이 있을 예정이다.

김 목사는 "헌신과 기도가 모여 한국교회 회복과 각성, 세계 복음주의 운동의 새로운 물줄기를 형성하는 촉매제가 되리라 믿는다"고 했다.

한편 714 대성회에서는 이재훈 목사(은누리교회), 주승중 목사(주안장로교회), 이인호 목사(더사랑의교회), 유기성 목사(WJM 이사장) 등이 메시지를 선포한다.

송경호 기자

'일만성도 파송운동' 후의 어려움에도... 이찬수 목사 "후회 없다"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가 지난 2일 주일 설교에서 '일만성도 파송운동' 후 겪는 어려움과 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며 "그러나, 단 한 번도 후회 없다"고 밝혔다.

이찬수 목사는 지난 2012년 7월 주일예배에서 분당우리교회 전 성도의 최소 절반인 1만 명에서 최대 4분의 3인 1만5천 명까지를 파송하고, 분당우리교회 드림센터를 앞으로 10년 간 사용한 뒤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것을 공식화했다. 그리고 지난해 29개 교회를 분립했다. 현재 분당우리교회 교인 수는 5천여 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목사는 "최근 일만성도 파송으로 다른 지역으로 나가신 연세 있는 권사님 2분이 나를 찾아왔다. 만나서 앉았는데, 울음을 참으시는 것 같았다"며 "순종하고 나간 29개 교회 중에 많은 분들은 행복해하신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적응을 잘 못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이분들이 망설이다가 결국 나를 찾아오셨다"고 했다.

이어 "그분들이 나에게 '솔직히 우리 이찬수 목사님 원망 많이 했습니다'라고 했다. 그렇게 아픔을 이야기 하셨다. 그런데 대화가 다 끝나는 무렵에 '목사님, 다시 되돌아 오려고 찾아 온 것 아니고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적응하느라고 많이 힘든데요. 이것을 견뎌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힘을 내서 교회 잘 섬기려고 찾아왔어요'라고 말하며, 울면서 돌아가셨다"고 했다.

이찬수 목사는 "사실, 파송된 29개 교회나 인근 작은 교회로 가신 분들도 다 진통 겪고 있지만, 남은 우리 성도님들도 다 진통 겪고 있다. 마음에 괴로움이 많다. 나도 너무 힘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 ©유튜브

들다. 남아 있는 순장님들 집이 너무 무겁다. 교역자들도 괴롭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괴롭긴 하지만, 나와 우리 교역자들과 대부분의 순장님들이 일만성도 파송운동한 것에 대해 단 한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왜 그럴까? 고급인력들이 우리 교회에 차고 넘쳐서 하나도 부족함 없이 잘 가는 그 일보다, 우리가 29개의 교회로 분산하고, 동네 작은 교회로 분산하고 하는 이 일의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며 "우리의 생각이 점점 하나님을 아무 생각도 없는 저질 신으로 전락시켜 놓고, 매일 내 이익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런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생각을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2년 6월 4일 새벽 3시경, 이찬수 목사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너희 교회로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 옳으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10년에 걸쳐 1만 명에서 1만 오천 명을 작은 교회로 파송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당시 이찬수 목사는 "이와 같은 급성장을 영화 '타이타닉'에 나오는 타이타닉호의 위기에서의 쓸림 현상처럼 느꼈고, 이를 영적 위기감으로 느꼈다"고 했다. 그렇게 '일만성도 파송운동'을 시작했다.

이상진 기자

한국 목회자 절반 "은퇴 연령 이전에 목회 마치고 싶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목회자 총 758명 대상 설문

설문에 참여한 목회자들 중 절반이 "은퇴 연령 이전에 목회를 마치고 싶다"고 답했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지난달 19일부터 7월 2일까지 목회자 총 758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들에게 '언제까지 목회를 하고 싶은지'를 물었다.

3일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49%가 '은퇴 연령 이전에 마치고 싶다'고 답했고, 26%

는 '은퇴 연령 이후에도 또 다른 목회를 하고 싶다'고 답했다. 25%는 '은퇴 연령(70세)까지 다 채우고 싶다'고 답했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은퇴 연령인 만 70세 이내에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회자가 전체 응답자의 74%로 높게 나타났다"며 "다만 사회적으로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83.6세까지 늘면서 정년 이후 사역을 계획하거나 목회를 지속하기 원하는 목회자들도 4명 중 1명꼴로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예장 통합 제108회 총회 장소 명성교회로 최종 확정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이순창 목사, 예장통합) 제108회 총회 장소가 서울동남노회 소속 명성교회로 확정됐다고 한국기독교공보가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예장 통합 제108회 총회는 오는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서울 명성교회 예배당에서 진행된다.

명성교회는 총회로부터 장소사용 요청에 지난달 9일 거절의사를 표했으나, 총회 측 재요청에 따라 지난달 25일 당회를 소집한 후 총회 요청을 받아들일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30일 총회에 장소 청원을 수락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총회 측 재요청의 이유로는 총회 기간 동안 교단 성장과 발전을 위한 영적 대각성 성회 개최 및 전국 지역노회의 명성교회 인근에서의 숙소 예약 취소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명성교회 측에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형구 기자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교문 :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100% UC대학 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4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NCA 사립학교

Now Enrolling IB PYP(K~5TH) • MYP(6TH~10TH) • DP(11TH~12TH)

COVID-19 시대의 교육 ▶▶ 집과 학교, 어디든 병행수업이 가능한 NCA 온라인 시스템!

- NCA만의 효율적인 Technology 제공
- 완전한 온라인 캠퍼스 환경 구축
- 커뮤니케이션 툴로 간편하게 정보 이용
- 검증된 LMS와 앱으로 높은 참여, 빠른 피드백
- 교사와 학생들 간의 디지털 콘텐츠 공유
- 데이터에 근거한 학생별 맞춤 교육

-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 12학년 평균 SAT 1,390점의 우수한 성적
-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 11:1 학생 교사 비율로 효율적 온라인 교육
-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타 사립학교 대비)
-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213) 487-5437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www.e-NCA.org





남가주 한인들을 위한 차세대 외래 진료 클리닉

희를
굿다

드디어,
여러분 곁으로
찾아갑니다!

조이스 리, M.D.

진료과목

만성 질환

→ 당뇨, 비만,
관절염, 고혈압,
골다공증

노인성 질환

→ 치매, 낙상,
우울증, 요실금,
수면장애, 보행
장애, 영양실조

부인과 질환

→ 질염, 골반염,
자궁경부염

예방 접종

왜 병원에서의 기다림을 당연하게 여기시나요?

오랜 대기시간만큼 만족스러운 진료를 받아오셨나요?

무성의 진료로 숨은 병을 발견하지 못해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사태가 빈번히 일어납니다.
시니어 환자분들을 위해 최적의 진료 시스템을 도입한 센터메디컬클리닉을 경험해 보세요.

하루 진료 환자 최대 7명, 인당 최대 1시간!
한분 한분 정성을 다해 모십니다.

* 환자 등록 선착순 300명까지 / 진료 사전 예약 필수

- 세분화된 현대의학 단점 보완
- 질병 예방·건강한 삶 유지 초점

가정의학과 박사

조이스 리 초대 주치의

Joice Rhee, M.D.



당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평생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진료시간 : 월 - 금 8:30 am ~ 5:30 pm
(714) 519-3024 *예약과 자세한 사항은 전화 부탁드립니다.
1995 W Malvern Ave, Unit A, Fullerton, CA 92833

* 플러튼 골드짐 근처 T-Mobile과 Subway 사이에 위치

복음주의언약교회, LGBT 지지한 회원 교회 제명

ECC 연례 총회서 투표...
‘친동성애’ 교회와 관계 단절

미국 복음주의언약교회(Evangelical Covenant Church, ECC)가 교단 역사상 두 번째로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성소수자(LGBT)를 교회 직분을 맡도록 정책을 세운 교회를 회원 자격에서 제명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주 캘리포니아 가든 그로브에서 열린 ECC 연례 총회에서 미네소타주 세인트 폴에 있는 어웨이큰 커버넌트 교회(Awaken Covenant Church)를 공식 교회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투표했다.

어웨이큰 교회는 목회자의 동성 결혼 주례를 허용하는 선언문을 채택하여 ECC의 성적 윤리 정책을 위반했다. 이 교회는 2010년에 ECC에 가입했으며, 2019-2020년 커버넌트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약 381명의 교인을 보유하고 있다.

ECC는 지난 1일 성명에서 이 교회가 “교단 내에서 비자발적으로 제명된 역사상 두 번째 교회”라고 밝혔다. ECC 이사회 의장인 팀 로저스는 “우리는 회원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항상 슬퍼한다. 각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며, 어웨이큰과 커버넌트 교회에 축복이 있기를 기도한다”고



2023년 6월 미네소타주 세인트 폴에 위치한 어웨이큰 커버넌트 교회에서 열린 예배 장면. ©어웨이큰 커버넌트 교회 유튜브

전했다. 어웨이큰 교회는 성소수자 개인이 “교회 활동의 모든 수준에서 참여”가 가능하며, 지도적인 직책을 맡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교회 웹사이트의 ‘포용과 환영’ 페이지에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본질적인 존엄성과 내재적 가치를 지니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과는 무관하게 모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교회의 장로 중 한 명인 알리사 폴슨은

교단의 제명 투표에 대해 “나는 결혼에 대한 누군가의 견해를 바꾸려고 여기에 온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고 싶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혔다.

그녀는 “우리의 차이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며, 울타리 없이도 무조건적인 사랑의 샘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 살 수 있다”며 투표에 대해 반박했다.

1885년 스웨덴 이민자들에 의해 설립된 ECC는 미국과 캐나다에 900개의 회원 교회를 가지고 있다. 1996년 ECC는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두 사람

이 하나가 되는 결혼 관계를 마련하셨다. 공개적으로 선언되고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결혼이 성적 관계에 적합한 유일한 장소”라고 선언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또 “이성 결혼, 결혼 생활에서의 충실, 혼외 금욕 - 이것들은 기독교의 표준을 구성한다. 우리가 부족함을 시인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명시한다.

ECC는 2022년 10월, 어웨이큰 교회와 시애틀에 본부를 둔 대형 교회인 퀘스트교회(Quest Church)가 성적 지향에 대한 입장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회원 명단에서 제외되었다고 발표했다.

두 교회를 제명하는 결정은 올해 연례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퀘스트교회의 담임목사인 게일 송 반툼은 지난달 21년 된 회원 교단인 ECC로부터 제명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반툼 목사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 LGBTQIA+ 형제자매를 포함한 모든 회원들이 가진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을 수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믿음은 ECC 교회로서의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에서 비롯되며,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유진 기자

예배 참석률 소폭 증가...코로나 이전보단 저조

가톨릭이 개신교보다
가파른 감소세

미국에서 종교 집회 참석률은 지난 2년 동안 증가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개신교인보다 가톨릭교인의 감소세가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갤럽은 26일 미국인들의 종교 관행에 대한 최신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5월 1일부터 24일까지 미국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오차 범위는 ±4%p다.

이에 따르면, 미국인의 31%가 최근 온라인으로, 또는 직접 교회, 모스크, 회당 또는 절에서 종교 행사에 참석했다고 답했으며, 이는 2020년과 2021년의 30%와 29%보다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대면 집회가 제한되고 온라인 집회가 증가하기 전 마지막 해인 2019년의 34%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교회 참석률은 34%를 기록했으며, 2020년부터 2023년 사이에는 31%로 떨어졌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주 예배에 참석했다”고 답한 비율은 평균 44%였으며, 2020년부터 2023년 사이에 이 비율은 40%로 떨어졌다. 교회에 출석하는 가톨릭교인의 비율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7%에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0%로 떨어졌다.

갤럽은 분석에서 “타종교 그룹에 속한 사람들의 샘플 크기가 너무 작아서 이 분석에서 다른 기간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추정치를 제공할 수 없었다”면서 “출석률 감소가 팬데믹 때문인지, 아니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추세의 연속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했다.

이 설문조사는 또 대면 집회 제한이 해제된 후에도 소수의 미국인들이 온라인 예배를 선호해, 전염병이 사람들이 종교 집회에 참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2020년 봄 전염병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수집된 데이터에 따르면, 현장 예배에 참석한 미국인의 비율은 2020년 5월에 사상 최저인 3%에 도달했으며, 온라인 예배에 참석한 비율은 28%를 기록했다.

현장 예배에 참석하는 미국인의 비율은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갤

럽의 2023년 5월 설문조사에서 26%로 측정됐다. 대조적으로,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는 미국인의 비율은 2023년 5월에 5%로 낮아졌다.

갤럽은 매주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미국인 중 84%가 현장 예배를, 16%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지난 5월 미국성서공회는 보고서를 통해 온라인 대신 현장 예배에 참석한 수가 2021년 38%에서 2023년 67%로 점진적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인 5명 중 약 1명(21%)은 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답했는데, 이는 2021년 45%에서 절반 이상 줄었든 것이다.

갤럽은 교회 출석률의 감소가 정치권 전역에 걸쳐 확산됐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공화당원의 45%가 “지난주 교회에 출석했다”고 했으며, 무소속인의 30%, 민주당원의 28%가 그 같이 답했다.

2020년에서 2023년의 경우에는 공화당의 40%, 무소속과 민주당원의 25%가 그 같이 답했다.

강혜진 기자

초대형교회 엘리베이션교회,
남침례회 탈퇴

미국의 초대형 교회인 엘리베이션교회가 남침례회(SBC)에서 탈퇴했다. 이 교회는 약 20년 동안 SBC에 소속돼 있었다.

엘리베이션교회(Elevation Church)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기반을 두고, 약 10,000명의 교인들이 출석하며, ‘엘리베이션 워십’(Elevation Worship)이라는 예배팀으로 유명하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의하면, 이 교회 스티브 퍼틱(Steven Furtick) 목사는 6월 26일자 서한을 통해 교단에 탈퇴 사실을 알렸고, 이는 이후 소셜미디어에 공유됐다.

이 서한은 “SBC 탈퇴에 대해 공개적으로 성명을 발표할 의사는 없다. (향후) SBC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SBC 교회들과 동역할 것”이라며 “우리의 관계 철회가 향후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역 및 선교 사업을 위한 기도를 철회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같은 편”이라고 했다.

CT는 “교회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이 서한은 SBC가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총회에서 여성 목사 안수 금지법을 통과시킨 지 얼마 되지 않아 작성됐다”며 여성 목사 금지 결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했다.

.Burke) 박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행간의 의미를 찾자면, 이는 뉴올리언스 총회의 대표단이 (여성 목사 안수 금지)를 분명하게 밝힌 데 따른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미국 교인 10명 중 8명 “교회의 미래 낙관”...이유는?

처치앤서스 회장 샘 레이너 칼럼

미국의 기독교 리소스 웹사이트 처치앤서스(Church Answers)에 ‘교인이 당신의 생각보다 미래에 대해 더 낙관적인 이유’라는 칼럼이 소개됐다.

이 글을 쓴 샘 레이너(Sam Rainer) 목사는 처치앤서스 회장이자, 플로리다의 웨스트브레이든턴 침례교회의 담임목사이다.

레이너는 2022년 8월 공공종교연구소(PRR)가 미국 성인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여론 조사에서 교인의 45%는 교회의 미래에 대해 매우 낙관했으며, 37%는 어느 정도 낙관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교인의 12%는 교회의 미래에 대해 다소 비관적, 4%는 매우 비관적이라고 밝혔으며, 2%는 답변을 거부했다.

그는 “놀랍게도 교인의 82%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가졌으며, 16%만이 비관적으로 전망한다”며 “이러한 낙관론과 함께, 교인 10명 중 9명은 다음 두 가지 주장을 단언할 수 있다고 말했

다. ‘친구와의 대화에서 나는 내 교회와 관련이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와 ‘현재 내 교회의 지도부에 대해 만족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대부분의 교인들은 교회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라며 “이들은 교회와 연합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또 일반적으로 그들은 교회의 지도부에 만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레이너는 “교회 지도부와 교인들 사이에 단절이 있는 것일까? 목자들이 더 부정적인 경향이 있는 걸까? 문제 해결은 지도부의 필수적인 임무이기에, 교회 지도자들은 도전과 결점에 대해 더욱 인식할 것”이라며 “일반 교인들은 문제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이유가 더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정 지역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전반적으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별개일 수 있다. 북미 지역 교회의 건강에 대해 우려할 만한 이유는 많다. 전반적인 그림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나는 교인들이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인식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 교



©Adrianna Geo/ Unsplash.com

회에 대해 여전히 희망적이다. 여기에서 교회는 간단하다. 여러분의 교회는 발전을 이룰 수 있고, 다른 교회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주변 지역의 손실은 중심을 강화시켰다. 지난 3년 동안 많은 교회들이 주변에서 사람들을 잃었다. 출석률은 떨어졌고, 일부 목회자들은 떠난 사람들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대부분은 돌아오지 않았다”며 “이에 대응하여, 남아있던 핵심 교인들은 강화되었다. 따라서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가 긍정적인 결과를 낸 것이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집에서 가까운 소형 교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팬데믹 이전에는 교회 참석자 중 10%만이 30분 이상 차를 타고 교회에 갈 의향이 있었다. 이제 이동 시간은 더욱 짧아졌을 것”이라며 “지역 교회의 범위는 줄어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지역 사회의 작은 동네 교회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또 “소형 교회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라며 “초대형 교회들은 가장 부정적인 관심을 끄는 경향이 있다. 거대 교회 운동이 시들해지면서 일부 부정적인 면도 사라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레이너는 “출석률을 높이기 위한 경쟁이 줄어들고 있다. 평균 주간 예배 참석은 여전히 성공의 척도이며 가까운 미래에도 계속 그럴 것”이라며 “교회는 성장해야 하지만, 다른 모든 교회보다 더 크고 더 나아져야 한다는 압박은 사라지고 있다. 감사하게도, 소형 교회라는 사회적 낙인은 과거에 비해 훨씬 약해졌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목회자들에게 “낙관주의는 회복 탄력성의 선행 지표다. 교회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지라”고 권면했다. 김유진 기자

데이비드 플랫 목사 “교회 내 정치 신념의 이상화” 경고

미국 워싱턴 D.C. 인근에 소재한 맥린바이블교회(McLean Bible Church)의 데이비드 플랫(David Platt) 목사가 신간 ‘주저하지 말라: 미국의 복음을 뒤로하고 예수를 따르라(Don't Hold Back: Leaving Behind the American Gospel to Follow Jesus)’를 소개했다.

베스트셀러 ‘래디컬’(Radical)로도 유명한 플랫 목사는 신간에서 “지난 5년 동안 교회 안의 불안한 경향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신념이라는 이상 숭배’였다”며 “세상의 위안과 권력, 정치와 번영을 위해 예수를 이용하는 이데올로기의 결과는 치명적”이라고 경고했다.

플랫 목사는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와의 인터뷰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복음을 미국의 이상, 가치, 권력, 정치와 섞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길을 잃을 수 있다”며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세상, 특히 미국에서 안락함과 권력, 정치와 번영을 추구하려는 유혹보다 훨씬 더 크다”고 했다.

그는 로마서 15장을 인용해 “교회는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중심으로 연합해야 한다. 교회가 종종 복음보다 우선하는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신념으로 분열되기보다, 예수님의

인격을 중심으로 연합되는 것을 보는 것이 나의 깊은 소망”이라고 했다.

플랫 목사는 그의 책에서 신념을 세 가지 버킷(buckets)으로 분류한다. 첫 번째는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의 핵심 신념과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나타낸다. 두 번째는 지역 교회마다 다를 수 있는 확신을 다루고, 세 번째는 신자들이 서로의 견해 차이를 인정하고 다루지 않기로 한 문제를 망라한다.

그는 “우리는 어떤 신념이 어떤 버킷에 들어가는지 확실히 알아야 하고, 그 버킷을 섞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런 다음 서로 다른 버킷에 들어가는 신념을 가진 이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기억하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치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안락함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 죽고 다른 세상을 위해 살라고 손짓하는 분을 따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랫 목사는 “특히 인종 문제와 관련된 교회 내 분열은 오랫동안 존재해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정치적·문화적 혼란으로 인



데이비드 플랫 목사. ©SBC 홈페이지

해 이러한 긴장이 표면화되고 있다”며 “이 순간이 수 세기 동안 교회를 괴롭혀 온 인종 분열을 해결하고 바로잡는 기회로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목회자들에게는 강단에서 정치적 문제를 다룰 때 성경이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말하는 문제에 대해 우선시하라고 조언했다. 또 정치적 주제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세상의 의제가 설교와 가르침을 좌우하도록 허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가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 의제를 설정하는 것은 세상이 아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정말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신자들에게는 정의에 대한 논쟁을 넘어 단결을 위해 싸우고, 불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정의를 추구하고 실천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의 주요 목적은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세계 선교에 참여하는 것은 선택된 소수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기독교인의 소명”이라며 “이 땅에서 우리의 목적은 미국의 위대함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오늘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나의 신간은 낙심하고 환멸을 느끼고 분열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며, 다음 세대들을 위한 것”이라며 “이 모든 것에서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예수님이 (어떠한)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교회에 알리는 것”이라고 했다. 강혜진 기자

인디애나주 대법원, 낙태 금지법 지지 판결

미국 인디애나주 대법원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주법을 지지하고, 그 법의 시행을 막는 하급법원의 명령을 무효화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인디애나주 대법원은 지난 6월 30일 에릭 홀콤(Eric Holcomb) 주지사가 지난해 서명한 상원법안1(SB1)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데릭 몰터(Derek Molter) 인디애나주 대법관은 의견서에서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낙태 서비스 업체들에 대해 “직면한 소송에서 타당한 성공의 가능성을 보여 줄 수 없다”며 “헌법을 비준한 이들의 원래 의도를 고려할 때, 낙태 금지를 막기 위해 주 헌법 1조 1항을 인용하려던 원고의 시도는 효과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태아 생명 보호가 대중의 건강, 복지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주의 광범위한 권한에 속한다는 원고의 인식과 더불어, 범죄 행위라며 낙태를 금지해 온 인디애나의 오랜 역사는 제1조 1항을 기회하고 비준한 이들 사이에 이 조항은 낙태를 규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입법 재량권을 의회에 남겼다는 공통적인 인식이 있었음을 제한한다”고 했다.

아울러 “요컨대, 우리 법원의 판례에 반영된 바와 같이 우리 주의 역사와 전통은 헌법 1조1항을 구성하고 비준한 사람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낙태를 제한하는 광범위한 입법 재량권이 의회에 남겨졌다는 공통된 이해를 나타낸다”고 했다.

크리스토퍼 M. 고프(Christopher M. Goff) 판사는 부분적으로는 동의하고 부분

적으로는 반대하는 의견을 작성했다. 그는 “모든 상황에서 낙태를 혐오하는 이들이라도 인생의 가장 개인적이고 사적인 측면에 대한 통제되지 않는 정부 권력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프 판사는 “헌법 초안 작성 당시 널리 퍼진 이러한 견해를 가진 남성들이 만든 역사에 의존하는 것은 오늘날 여성의 자유를 다루기에 부적절하다”며 “우리는 여성이 공개적인 토론에서 배제되고 소외되었던 시대에 행해진 남성 기관의 독점적 행위에서 여성의 권리와 같은 특정 문제에 대한 헌법을 도출할 수 없다”고 했다.

홀콤 주지사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 합법화 판결을 뒤집은 지 몇 달 만인 지난 8월 SBI법안에 서명했다.

그는 당시 성명에서 “생명 보호에 진전을 이룬 법안을 기꺼이 지지할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는, 이 감정적이고 복잡한 주제에 관해 시민과 선출된 대표들의 진지하고 개인적인 증언으로 가득 찬 오랜 청문회 끝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인디애나 법은 낙태를 대부분 금지하고 있지만, 강간, 근친상간, 산모의 심각한 건강상의 응급 상황, 또는 치명적인 태아 기형의 경우 허용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된 직후 미국시민자유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인디애나 지부와 가족계획연맹을 포함한 낙태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금지령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유진 기자

판사, “바이든 행정부와 소셜미디어 협력 제한” 명령

미 정부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게시물과 콘텐츠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연방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잘못된 정보로 판단한 콘텐츠를 다루기 위해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일시적으로 제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테리 도티(Terry Dotty)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4일 루이지애나와 미주리에서 공화당 법무장관이 제기한 ‘미주리주 등 대 조 바이든’ 사건에 대한 예비 금지 명령을 승인했다.

사건이 계속되는 동안 도티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 관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언론의 자유가 포함된 콘텐츠의 제거, 삭제, 억제 또는 축소를 촉구, 격려, 압박 또는 이를 유도할 목적으로 소셜미디어 플랫폼 업체와 교류하는 것을 차단했다.

또 관리 공무원은 언론의 자유가 보호되는 콘텐츠의 축소 또는 삭제, 억제, 또는 제거를 위해 어떤 식으로든 이메일, 전화, 편지, 문자 메시지를 촉구, 격려, 압박 또는 이를 유도하는 소셜미디어 업체와 모든 종류의 통신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됐다.

판사는 행정부가 언론의 자유가 보호되는 소셜미디어 회사에 게시된 콘텐츠의 축소 및 제거, 삭제, 억압을 촉구, 독려, 압박 또는 이를 유도할 목적으로 선거 무결성 파트너십, 바이러스성 프로젝트, 스탠포드 인터넷 관측소 또는 유사한 프로젝트 그룹과 함께 어떤 방식으로든 협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지 명령에 따르면 제한 사항에는 “플



©Pixabay

랫폼에서 범죄 행위 또는 범죄 음모와 관련된 게시물을 소셜미디어 회사에 알리는 것”, “국가 안보 위협, 갈취 또는 게시된 기타 위협에 대해 소셜미디어 회사에 알리는 것”, “미국의 공공 안전 또는 보안 위협에 대해 소셜미디어 회사에 알리는 것”과 같은 상황은 포함되지 않는다.

앤드류 베일리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연방 정부는 미국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 건국자들이 수정헌법 제1조를 헌법에 안착한 이유”라고 했다.

아울러 “내 사무실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수정헌법 제1조 위반으로부터 미주리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 이 금지 명령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에서 큰 승리”라고 했다.

익명의 백악관 관계자는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법무부가 법원의 명령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 대한 옵션을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2023년 월드미션대학교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

가을학기 온라인 입학설명회
2023. 7.14(금) 5PM

다양한
온오프라인
학습방식

미국
ATS 인가
프로그램

온라인
100% 트랙

학위과정별 전공

준학사과정 | 기독교사역학, 기독교상담학
학사과정 | 기독교사역학(찬양과 예배 전공), 기독교상담학, 사회복지학, 간호학(RN to BSN)
석사과정 | 목회학, 신학, 상담심리학, 음악학, 찬양과 예배, 글로벌리더십(복지선교, 코칭 전공)
석박사통합과정 | 신학 전공, 음악학 전공, 예배학 전공, 상담코칭 전공
박사과정 | 목회학, 음악연주학, 실천신학(영성과 상담코칭, 종교와 문화)
수료과정 | 유아교육, 비영리단체사역

WORLD MISSION UNIVERSITY
TRANSNATIONAL EDUCATIONAL EDUCATION

가을학기
온라인 입학설명회
신청QR

World Mission University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ace, Los Angeles, CA 90020 | wmuinfo@wmu.edu | www.wmu.edu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동부 지역, 글렌데일, LA북부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어,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김성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명성교회 오후 7:30(월, 수, 금)

LA백송교회

백합회협 손길교회 소나무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사랑하시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213) 674-7966, (213)245-6616

김기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9:15) 새벽예배 (월-토) 오전 6시
3부예배(새벽예배) 오전 11:30 (토-일) - 천정성교회
대학원대학/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치유하여,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dden 고지)
T. (213) 386-2233

씨니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예배 오후 7:00
아침달소배 월-토

LA씨티교회

일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김지훈 담임목사

주일 1부 전말예배 오전 7:3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 2부 전말예배 오전 9:00 이영나(USA/NA) 주일 오후 2:30
주일 3부 열린예배 오전 11:30 토요한글학교 오전 9:30
수요 오전 중보기도회 오전 9:30 영.유아부.유서부.초.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cofice1@gmail.com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한새벽 오전 6:20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새운 뜻을 이루기에는 애매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박은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고광선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학교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통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 오후 6:00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신령 새을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우영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 (토)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참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강지연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새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신과 진리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고송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안 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수요일/금요일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금요일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서사라 담임목사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실교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방송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618-0614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신승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금요일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리더노 오후 6:30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기와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이명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친.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안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이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목요교회 오후 7:30 수요일/금요일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EM(대,청) 오후 7:30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일기도회(매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366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금요일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대,청) 오후 7:30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일기도회(매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a@hnsa.com

김지성 담임목사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EM 오전 11:15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일(토)예배 06:00AM
3부 11:00AM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wigm.org

안정섭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중.고.대.청.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밸리연합감리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wkum.com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2부 오전 12:30 오전 10:15, 오후 12:40
EM 오전 11:15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새벽부 오전 8:45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기쁨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미국인 과반수, 기업 및 학계의 LGBT 옹호에 반대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최근 여론 조사에서 미국인들이 국내 기업과 학계가 계속해서 성소수자(LGBT)를 지지하는 추세에 지쳐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서밋미니스트리스(Summit Ministries)와 맥러플린 어소시에이츠(McLaughlin & Associates)가 지난주 발표한 공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기업이 논란이 되는 정치 및 문화적 사안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나타났다. 이 여론조사는 올해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1000명의 일반 선거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3%는 논란이 되는 정치 및 문화적 사안에 중립 입장을 유지하는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선호했으며, 27%는 공식적인 입장을 채택하는 기업과 거래하고 싶다고 답했다.

공식 입장을 발표한 기업에 대한 보이콧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52%는 해당 기업에 대한 보이콧을 지지했지만, 48%는 보이콧에 반대했다.

이는 국가행동협약(Convention of States Action, CSA)과 트리팔가 그룹(Trafalgar Group)이 6월 5일부터 9일까지 1088명의 일반 선거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설문 조사는 소위 '성소수자의 달'과 트랜스젠더리즘을 홍보한 기업인 '버드라이트'와 '타지' 등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다루었다. 그 결과, 응답자의 61.9%가 기업들이 '문화적 사안에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응답자의 23.9%는 기업들이 '성소수자의 달 동안 정치적 주제를 계속 선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나머지 14.1%는 양쪽 의견을 부정했다.

민주당 지지자의 46.8%는 기업들이 '성소수자의 달 동안 정치적인 발언을 계속할 것'을 지지했다. 반면, 37.1%는 '기업이 중립을 지키는 것'에 찬성했다.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81.8%, 무소속은 66.2%가 기업들이 성소수자의 달에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CSA와 트리팔가 그룹의 조사는 응답자들에게 기업의 정치적 주장을 근거로 실제로 보이콧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 물었다. 조사에서 '우오크(Woke)나 진보적 입장을 취한 기업을 보이콧한 적이 있는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0.8%가 인정했고, 24.5%는 기업이 '보수적이거나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입장을 채택했기 때문에 보이콧했다'고 답했다. 나머지 34.7%는 보이콧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 지지자의 45.1%는 '보수적이거나 MAGA 주장'을 한 기업을 보이콧했다고 수긍했으며, '우오크 또는 진보적 이념'을 채택한 기업에 대한 보이콧은 14.7%에 그쳤다. 나머지 40.2%는 보이콧에 참여하지 않았다.

반면, 공화당 응답자의 68.4%가 '우오크 또는 진보적 이념'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기업을 보이콧했다고 인정했으며, '보수적이거나 MAGA' 주장을 한 기업과 거래를 끊은 응답자는 5.5%에 불과했다. 나머지 26.1%는 보이콧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밋미니스트리스는 또한 미국인들에게 '아동에게 트랜스젠더리즘, 드래그 쇼, LGBTQ+ 이념을 소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53%)는 성소수자 이념에 아이들을 노출시키는 것이 '정서 및 심리적 발달을 해친다'고 답했으며, 34%는 '그 반대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글로벌 힐송교회 담임목사 “새로운 비전 공유할 것”

지난 2월, 글로벌 힐송교회의 새 담임으로 부임한 남편 필(Phil)과 아내 루신다 돌리(Lucinda Dooley) 목사가 전임 목회자들의 스킨들로 인해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필 돌리 목사는 지난 3일 호주 시드니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 ‘호프 103.2’와의 인터뷰에서 교회가 “수많은 스캔들 이후 천천히 회복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달 3일부터 5일까지 개최될 힐송 콘퍼런스가 “새로운 비전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돌리 목사는 “우리는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다. 이는 그리스도를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건강한 교회”라며 “콘퍼런스가 건전한 팀의 발전, 건강한 지도자 개발, 접할 수 없었던 다양한 의견을 듣는 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회가 진정 전환하려는 것은 사명에 중심 두기다. 우리는 세 가지 영역에서 사명을 정의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 구축, 의미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 영향 창출, 목적이 있는 예수의 제자 양성”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글로벌 힐송교회의 전임 목사인 브라이언 휴스턴(Brian Houston)의 사임과, 뉴욕힐송교회 전 담임인 칼 렌츠(Carl Lentz) 목사의 해고와 관련해 “많은 언론의 관심과 힘든 시기”를 겪었음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그는 “(힐송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항상 최상이 아닌 것을 이해한다. 우리는 신뢰를 회복해야 하며, 언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칼 렌츠는 최근 개봉한 다큐멘터리 ‘힐송의 비밀’에 참여했다. 2022년에는 디스커버리 플러스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힐송: 대형교회 폭로’가 대중에게 공개됐다. 돌리 목사는 “루신다와 나는 교회를 이끄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 무게를 실감하고 있다. 우리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오고 있다고 믿는다”며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사명에 집중하고 있고, 관리 측면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이사회를 개편하고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루신다 돌리 목사는 전임 목회자들의 스캔들로 인해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3년 2월 5일에 열린 위임식에서 필과 루신다 돌리 목사 부부가 글로벌 힐송교회의 새 담임으로 임명됐다. ©글로벌힐송교회 페이스북

브라이언 휴스턴 목사는 두 여성이 지난 10년간 그가 지지른 비행을 고발한 뒤, 2022년 3월 23일에 글로벌 힐송교회의 담임목사직을 공식 사임했다.

휴스턴은 또 1970년대에 그의 아버지의 아동 성추행을 경찰에 알리지 않고, 오픈한 혐의로 형사 고발에 직면해 있다. 그는 아버지의 성 학대 사실을 1999년 9월 초에 알고 있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사건 당시 휴스턴은 십대 소년에 불과했다.

렌츠 목사는 리더십 문제와 신뢰 위반 및 혼외정사로 인한 도덕적 실패로 인해 2020년 11월에 해고되었다. 그 이후, 힐송은 뉴욕힐송교회와 동부 캠퍼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또 2018년 뉴욕힐송교회 내 직원들 간의 부적절한 성적 일탈 행위와 재정적인 남용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힐송은 ‘기부금 불법 유용’ 혐의와, 휴스턴, 그의 가족 및 교회 리더들에게 거액의 현금이 유폐되었다는 전 직원의 소송으로 인해 또 한차례 타격을 입었다. 호주 자선 단체 및 비영리 위원회는 2022년 3월부터 힐송교회가 후주의 자선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교회 측 변호인단은 지난 4월, 회계법인 그랜트 손튼(Grant Thornton)이 힐송교회 재정에 대한 공법학적 조사 결과, 힐송은 “불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았고, 유용 혐의 주장은 “오해이며 교회적 상황에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발표했다. 힐송은 앞서 3월에 재정 관리 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알렸다.

김유진 기자

중 공안, 교회 압수수색 후 목사 등 4명 구금



중국 북동부 선양에 있는 동광교회에서 한 여성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영국&아일랜드 오픈도어

미국의 박해 감시단체인 차이나에이드(ChinaAid)는 3일 중국 공안이 성지아(Shengjia)교회의 교육센터를 압수수색하고 덩 옌시양 목사와 3명의 교인들을 체포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5월 24일 체포된 이들 4명은 현재 포산시 난하이구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불법 사업 운영' 혐의로 공식 기소됐다.

현지 소식통은 "당시 경찰, 국가보안원, 종교사무국 직원, 관리사무소 등으로 구성된 병력이 시설에 들이닥쳤고, 철저한 수색으로 모든 교육 장비를 압수한 뒤 덩 옌시양 목사와 교인들을 체포했다"고 했다.

체포된 이들의 가족들은 이후 30일간의 형사 구금 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들은 '불법 사업 운영' 혐의로 여전히 구금된 상태다.

'리틀 후'로 알려진 주 롱지양(Zhu Longjiang)의 아내는 소셜미디어에 "돌봄이 필요한 시댁 부모님들이 아들의 귀환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우리는 정의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광둥성 포산시 순더구 공안국이 곧 남편을 석방해 줘서 부모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함께 구금된 왕 웨이차이(Wang Weicai)의 아내도 역시 남편을 그리워하고 있다. 그녀는 남편의 '신앙에 대한 양보할 수 없는 헌신'을 언급하며 '불법 사업 운영' 혐의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온라인 교회 단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기독교인들에게 물품을 제공해 온 주 차오링(Zhu Qiaoling)도 구금된 상

태다. 성지야교회는 성명을 내고 교인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그들은 결백하다. 그들은 온유하고 사랑스럽고 정직한 사람들이다. 또 공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료들과 이웃들에게 존경받고 있으며 평판이 매우 좋다. 법 집행 기관은 선악을 구분 없이 사람들을 체포해 막대한 사회적 피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이번 체포는 시진핑 정권 하에서 지속적으로 심화된 기독교 단체에 대한 탄압이 최근에 더 강화된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영국에 기반을 둔 박해 감시단체인 릴리스 인터내셔널(Release International)은 "중국의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을 거부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충성을 증명하라'는 압박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 현지 파트너는 "시진핑 정부는 모든 것을 통제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기독교가 (아직) 완전히 통제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했다.

이러한 문제의 경향은 "이단 연루, 부패 또는 불법 종교 활동 혐의" 등에 따른 복음주의자들의 체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이른비언약교회(Early Rain Covenant Church)와 같이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교회들도 핍박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해당 교회의 교인들은 심문을 위해 자주 구금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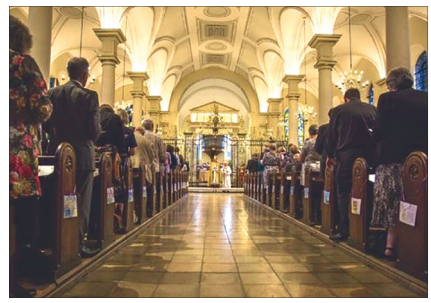
현재 정부에 등록된 5개의 종교단체만 인정하고 있는 중국은 오픈도어(Open Doors)가 올해 발표한 세계 기독교 박해국 목록 중 16위를 차지했다.

오픈도어 보고서는 "중국은 국제적인 어젠다를 지배할 뿐 아니라, 기존의 인권을 재해석하고 새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스리랑카, 미얀마, 말레이시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 다양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의 '권위주의 길'을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혜진 기자

영 성공회, 사용률 낮은 예배당 '매매' 대신 '임대' 모색

영국성공회가 교회 수 및 예배 출석자 수의 급감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률이 낮은 교회를 매매가 아닌 임대 형식으로 향후 재개발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영국성공회 예배 모습. ©Facebook/Church of England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성공회 총회의 이 계획은 출석률이 저조한 교회를 더 큰 교회와 합병하고 빈 건물을 매각하는 현재 관행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건물을 유지하고 지방 당국, 기타 기독교 단체, 또는 공유할 수 있는 소유권 계약에 따라 다른 단체에 임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캔터베리대주교가 의장을 맡고 있는 영국성공회 재무위원회(The Church Commissioners for England)가 이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회는 영국성공회의 130억 달러 기금과 투자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있다.

이번 주 시노드에서 논의될 이 계획은 교회에 '휴식' 허용을 장려하며, 그러한 움직임은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교회와 지역사회가 증거와 봉사를 위한 새로운 기회에 계속 열려 있도록" 한다. 또 교회의 문을 완전히 닫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열 수 있도록 '주님을 기다리는' 형태다.

'세이브더패리스'(Save the Parish) 캠페인 그룹의 회장인 마르쿠스 워커(Marcus Walker) 목사는 이에 대해 "전국의 지역 교구민들을 위한 진정한 승리"라며 "제안된 계획에 따라 휴식 상태에 있는 교구민들은 예배를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 새로운 접근 방식은 지난 10년 동안 예배 출석률이 급격히 감소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지난 6월 캔터베리대주교 저스틴 웰비(Justin Welby)는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출석률이 감소한 것을 개인적인 '실패'로 규정했다.

강혜진 기자

이 보고서는 앤드류 럼지(Andrew Rumsey) 램즈베리 주교가 작성한 '신학적인 서론'을 특징으로 하며, 교구 및 교회 조직들이 지역사회에서 만만치 않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계속 열어 둘 수 있도록 고군분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럼지 주교는 처치타임스와와의 인터뷰에서 "자원의 스트레스와 경직성 가운데, 우리가 성급히 건축 유산의 미래를 닫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건축물은 그 자체로 배움을 주고, 많은 건물이 풍부한 변동성의 시기를 수없이 견디고 시험의 때를 버텨 왔다"고 했다.

이어 "만약 물질적 도전, 교회의 쇠퇴, 직분자와 성직자의 부족으로 미래의 회복력이나 생존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아진다면, 우리는 안식일을 허용하는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 이것이 교회와 이웃 사이의 공통 기반인 교회가 비옥함을 회복하고 미래의 성장을 기다릴 수 있도록 건물에 휴식 또는 '희년'의 기간을 적용하는 논리"라고 했다.

한편 텔레그래프가 분석한 영국성공회 데이터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9년 사이 423개, 1987년부터 2019년까지 약 1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이로 인해 운영 중인 교회의 수는 약 15,496개로 줄었다.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경연구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오명찬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곽덕근 담임목사

발리예배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 금요성경연구회 저녁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OC예배 월요일 오후 7:30 수요일 오후 7:30 목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요일 오후 5:30 / 토요일 오후 6:00
6801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1

최혁 담임목사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플라시(Calling), 고치교(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 549-9199 / choonhyun.org

사우스베이, 오렌지카운티 지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Redeeming Grace(EM)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영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이항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326-0300, http://rpcsc.com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B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중교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김정훈 담임목사

대홍장로교회
파송기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세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중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 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 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GPC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한국학교(토요일) 오전 9:0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벘 6:7)

12413 E. 195 St. Cerritos, CA 90703
T. (562) 402-2919 www.cmchome.org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기든구국재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정예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부 오전 9:30, 11:30
한어(한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15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N)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62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는나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EM) 주일 11:00am (매일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서서 오전 9:30(금)
청년기도회 오전 9:00(목)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림혁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령영예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별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오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청년부 오후 2:30

박신용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일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안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9:20 토요일 오전 6:00
3부예배 오후 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소망받는교회 세계선교를 이루리겠다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 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오후 1:00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8 S Vermont Ave #214, Harbor City, CA 90710
T. (310) 905-2228 / newchurchdtdla.com

■ 강석진 목사의 북한교회사 이야기

평양 최초의 의료와 교육 선교사인 감리교의 윌리엄 제임스 홀과 그가 쓴 이야기 1

서울 마포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양화진 묘원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약 450여 명의 외국인 선교사들이 그곳에 분향양양 묻혀있다. 그 중에 3대에 걸쳐 여섯 명이 묻혀있는 가족이 있다. 바로 미 감리교 해외 선교부에서 파송된 의사 윌리엄 제임스 홀(William James Hall, 1860~1894) 선교사이다.



강석진 목사
'북한교회사' 저자

그는 1860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무디의 설교에 감명을 받아 가난하고 불행한 아시아인들을 위해 헌신하라는 소명을 받고, 뉴욕 퀸즈 의과대학에 진학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빈민들을 위한 의료선교의 꿈을 가지고 펜실베이니아 의과대학을 졸업한 로제타 셔우드(Rosetta Sherwood, 1865~1951)라는 믿음의 여인이 있었다. 이 둘은 뉴욕의 한 병원에서 만나 조선을 선교지로 정하고 약혼을 하였다.

그들이 미 감리교 선교부에서 훈련을 받고 조선에 1891년에 입경하였다. 제임스 홀이 평양 선교를 시작한 것이 1892년이였다. 그는 그해 3월부터 평양의 여관에 머물면서 환자들을 치료함으로써 평양 주민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 주었다. 1893년 평양성 내의 서문통에 두 개의 가옥을 구입하여 주거와 선교 활동의 근거지로 삼았다. 그해 3월에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후 사무엘 마펏 선교사가 평양 대동문 널다리골에 예배를 드리게 시작한 때보다 3개월 앞선 것이다. 그들의 사역의 중심은 의료 활동이었으며 그 사역은 순탄치 않았다. 그 당시 기독교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가진 평양 감사인 민병서는 퇴거 명령을 내리거나 환자들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수시로 훼방을 놓았으며 일부 평양 주민들은 그의 집에 돌팔매질을 하여 불안에 떨게 하였다.

그러나 홀 선교사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순교의 신앙으로 진료소 설립을 강행했고 탄압에도 불구하고 오직 사랑으로 주민들을 대하자 그의 모습에 저들의 마음의 문도 점차 열리게 되었다. 또한 평양 감사 부인의 병을 고쳐주자 호의적으로 변하여 오히려 저들의 활동을 도와주기도 하였다.

1894년에는 기숙사 학교를 설립하여 평양 소년 13명을 모집하여 한글, 한문, 성경 등의 과목을 가르쳤다. 그 학교의 이름이 '격물학당(格物學堂)'으로서 그 뜻은 만물의 이치를 배우는 곳이라는 것이었다. 이 학교 설립과 운영에는 김창식을 비롯한 여러 조선인 동역자들이 큰 힘이 되어 주었다. 이렇게 세워진 이 학교가 크게 발전하여 1918년에는 '광성학교'로 개명되었으며 해방 후 공산화되자 공산 정부는 기독교의 흔적을 제거하기 위해 '평양제1중학교'로 다시 개명한 역사를 갖고 있다.

홀의 사역이 안정되자 그의 아내 로제타 홀도 아기를 데리고 평양으로 1894년 5월 7일에 이주하여 남편과 함께 사역을 본격화 하였다. 이 모자가 평양에 당도하자 최초의 서양 아기를 구경하기 위해 약 1천 5백여 명이 몰려들어 마치 외계에서 온 사람들인 양 신기하게 여겼던 것이다.

1894년 9월 15일 평양에서 청군과 일본군과의 전투가 벌어져 평양 성내는 전쟁터로 변했고 모두 피난길에 올랐다. 이에 홀 선교사 가족도 위험을 피해 한성으로 내려왔다가 전투가 일본군의 승리로 끝나자, 그는 부인과 아기를 한성에 둔 채 홀로 다시 평양으로 올라가 그곳에 부상당한 군인들과 주민들의 치료에 온 정성을 쏟았다. 홀은 밀려드는 환자를 돌보아 주면서 극도의 피로감이 쌓이자 그 당시 평양 성내의 전염병인 말라리아에 감염되었고 건강 상태가 더욱 악화되자 한성으로 운송되었다. 그러나 도중에 다시 발지티푸스에 재차 감염되어 1894년 11월 24일 조선에 온지 3년 만에 아내와 아들과 유복자를 남겨 두고 순직하여 지금의 양화진 묘원에 묻히게 되었다.

키케로가 법정에서 사용한 인문학(Humanities)의 의미

지난 글에 키케로가 인문학을 의미하는 후마니타테스(Humanities)라는 말을 알아보았습니다. 키케로는 헬라 문화가 지배하는 로마 사회에서 획기적인 개념을 가진 '후마니타테스'를 소개하며 바람직한 인간상을 제시했습니다. 바람직한 인간 교육을 위해 인문학(후마니타테스/Humanities)을 주장했습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키케로는 많은 라틴어책을 남겼고 그의 책들이 라틴어 교재로 사용됩니다. 키케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가요, 가장 위대한 문장으로 인정받습니다. 키케로는 라틴어 산문의 품격을 높인 작가로 평가받습니다. 키케로의 작품을 가장 먼저 인정한 사람들이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입니다. 키케로의 명문장을 맹목적으로 암송하고, 그의 문장구성 형식을 강조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키케로의 문장을 암송했던 사람들을 키케로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고전의 내용과 정신을 이어받으려 했던 인문주의 교육이 고전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단순히 고전 문장의 암송과 모방에 집중한 것입니다. 현대는 고전어 교육에 제한된 편협한 인문주의적 경향을 키케로주의라고 합니다. 즉 고전 명작 읽기에 인문학을 국한시키는 것을 키케로주의라고 합니다.

키케로는 수사학, 정치, 역사, 윤리, 우정, 노년 등 각종 주제에 관련된 다양한 글을 남겼습니다. 키케로는 많은 저술과 탁월한 연설문을 남김으로 인문학의 개화기를 이끈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작품은 그의 연설문입니다. 그는 연설을 통해서 인간다움, 사람 냄새, 공동체 정신, 덕, 용기, 절제 등에 관한 명언들을 남겼습니다. 그의 연설문은 인문학 교과서입니다.

그의 연설문에서 인문학(후마니타테스/Humanities)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에게 후마니타테스는 이성과 언어가 조화를 이뤄 사람다운 삶의 향기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후마니타테스를 활용해 인간미가 넘치는 개인의 삶을 묘사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만한 세상, 사람이 살만한 품격있는 나라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후마니타테스를 품은 인간이 이상적인 로마인이라면 후마니타테스를 품은 국가가 로마 공화국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키케로의 인문학은 교실이 아니라 법정과 정치현장에서 나왔습니다. 이론적 교과서가 아니고 실제 삶에서 발전된 것입니다. 키케로의 연설 가운데 법정 연설이 중요합니다. 많은 법정 연설이 전해 오지만 키케로가 남긴 두 개의 법정 연설이 인문학(후마니타테스/Humanities)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섹스투스 로스키우스 변론과 시인 아르키아스 변론입니다.

키케로의 "섹스투스 로스키우스 변론"은 법정연설의 모범입니다. 이 변론에서 키케로는 섹스투스 로스키우스라는 청년을 변호했습니다. 청년의 아버지 섹스투스 로스키우스는 농장을 14개나 가졌던 아메리아(Ameria)지방 부호였습니다. 그가 로마에서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살해되었습니다.

고발자들은 그의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탐내서 죽였다고 몰아세웠습니다. 이 사건을 분석한 키케로는 이 청년을 고소한 자들의 소행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섹스투스 로스키우스를 살해하고 아들마저 살인범을 만들면 자신들이 그 재산을 차지하려는 의도를 보았습니다.

키케로는 이 변론의 목적이 살맛 나는(후마니타테스)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변론의 주요 내용도 공멸하는 세상이 아닌 서로 더불어 사는(후마니타테스)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서로 연대해서 용기롭게 불의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변론에서 등장하는 인문학(후마니타테스)의 목적은 인간다움이 살아 숨 쉬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키케로의 두 번째 법정 변론은 '시인 아르키아스를 위한 변론'입니다. 그는 이 변론에서 인문학이란 말을 시의적절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리스 출신의 시인으로 로마에서 활발한 문학 활동을 했던 아

르키아스는 기원전 62년에 로마 시민권을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고발당했습니다. 사료에 의하면 아르키아스가 루쿨루스 장군의 군사적 공적을 찬양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 루쿨루스의 라이벌이었던 폼페이우스가 아르키아스의 로마 시민권을 문제 삼았습니다.

거대한 세력의 첨예한 갈등에 현장에서 키케로가 이 어려운 변론을 맡은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아르키아스가 키케로에게 수사학을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인 보은의 기회였습니다. 둘째는 아르키아스를 보호하는 것이 인문학적이란 생각했었습니다.

키케로는 이 변론에서 세 가지 의미를 주장합니다. 첫째, 시인 아르키아스가 로마를 인문학(후마니타테스)적으로 도왔다고 강조합니다. 둘째, 시인 아르키아스를 보호하는 것이 로마인이 인문학적인 인간(인간미 넘치는 인간)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아르키아스를 보호하는 것이 로마가 인문학적인 나라(인간미 넘치는 나라)가 되는 길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키케로가 약 40세에 '아르키우스 변론'을 했습니다. 명성과 지위를 가진 키케로가 이렇게 인문학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로마 사회에 인문학이라는 용어의 대중화가 되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키케로는 이 변론에서 시인 아르키아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는 것이 인문학을 위한 것이라고 밝힙니다.

키케로는 법정 연설에서 인문학의 효용을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먼저 개인을 인간미 넘치는 따뜻한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 인문학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키케로 자신이 시인 아르키아스 등 스승들의 교육을 통해서 인문학적인 인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인간미 넘치는 개인의 육성에 인문학(후마니타테스/Humanities)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둘째로 집단이나 국가를 인간미 넘치는 따뜻한 사회로 육성하기 위해서 인문학(후마니타테스)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시인 아르키아스를 위한 변론에서 로마가 품격있고 인간미 넘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인문학(후마니타테스/Humanities)의 필요성을 강변했습니다. 인문학이 국가의 품격을 높인다는 주장입니다.

2023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신입생 모집
탈보트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상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보트" 검색
유튜브: "탈보트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공회원
• 기독교(영어), 목회학(한국어), 상담학(영어), 석사,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용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for the Church
Midwestern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1-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m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 ATS, ABHE, 정회원
• 온캠퍼스 수업
• CANVAS 기반 온라인 수업
• 실시간 화상수업
• 온-오프라인 통합 블렌디드 수업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학자금 지원 (Caf & Pell Grants)
• 학부 | 신학, 사역목회학, 상담학(영국), 목회학, 목회학 석사, 상담심리학, 신학, 상담심리학, 상담심리학, 상담심리학, English M.Div., 목회학 석사, 선교학 석사
주소: 15605 Carner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입학문의: (626) 926-1023, ext. 300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 (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B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신학교(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 (626) 3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e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li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i.aurahelio@gmail.com
전화: 1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신학교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626) 653 9547 EXT.#112/admin.kor@itsia.edu

세상과 그리스도를 잇는 We Bridge 교회

박은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후 12:50
주일예배 2부 오후 12:50
수요나눔 교역자 오전 9:30
수요중보기도 오후 8:30

Acts Global Church

15 Orange Tree, Irvine, CA 92618
T. (714)886-7287

이미애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15
새벽기도 오전 5:30

Angel's Church

255 S Hill St, Los Angeles, CA. 90012
T. (323)485-8787

한주봉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00
화요일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전 10:00

Connecting Mission Baptist Church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T. (510)390-5456

이현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00
교육부예배 오후 12: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전 6:30

His Presbyterian Church

4037 Lehman R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18-6611 www.Hisch.org

송재봉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목요중보기도회 저녁 8:00
새벽예배 새벽 6:00(월-토)

LA사랑의 동산교회

2865 W. 7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63-9899

박지상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LA하나교회

1503 Crenshaw Bl, Los Angeles, CA 90019
T. (213)500-2047

JOE HONG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Metanoia Church of Southbay

18051 Crenshaw Blvd., Suit I, Torrance, CA 90504
T. (213)800-3120

ISAIAH LEE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New Start Community Church

77651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T. (714)336-0520

장경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00
성경공부 및 기도회 금요일 오후 7:30
https://www.facebook.com/chkh069

Only One Church

1525 Glenoaks Blvd. San Fernando, CA 91340
T. (469)289-8781 카톡 ID : chkh0810

제임스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The Well Church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562)410-9225

남상권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6:30(토)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남가주 어노인팅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1455 Crenshaw Blvd Suite 205, Torrance CA 90501
T. (213)800-3651 www.anointingchurch.org

김상현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In Christ Christian Church

1465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213)422-6388

안상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남가주늘사랑교회

1650 Avenida Selva, Fullerton, CA 92833
T. (714)482-5466

오상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00
EM/교육부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6:00
금요성구탐구 오후 7:30

남가주예수사랑교회

16113 S. Denker Ave, Gardena, CA 90247
T. (310)702-7571

김창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남가주은혜선교회

300 Valjejo Dr. Glendale, CA 91206
T. (310)713-3006

차권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집회 저녁 7:00
토요 비전새벽기도회 오전 6:00

놀워장로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 (213)598-6878

강은덕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전 9:30

늘새론교회

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T. (714)453-8829 dmsjrkrd@hanmail.net

김영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30
어르신예배 오후 3: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더섬기는교회

4100 W Commonwealth Ave #102, Fullerton, CA 92833
T. (909)975-1260 jacobkim1318@gmail.com

정용암 담임목사

주일예배 낮 12:00
수요TEE성경공부 오전 10:00

랜초한인교회

31300 Rancho Community Way, Temecula, CA 92592
T. (714)337-8096 http://rancho.kr

신용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어린이주일학교 오후 2:30
화요일성경학기 오후 7:30
토요일참기교회 오전 7:30

로고스라이프교회

4872 Bishop St. Cypress, CA 90630
T. (714)673-2141

정달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리뉴얼새힘교회

1636 W 8th St. #315, Los Angeles, CA 90017
T. (213)509-5360

김명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아침기도회 오전 6:30(화-토)
송보기도회 오전 10:00(주일)
소그룹 성경공부 오전 10:00-12:00(수)

말씀위의교회

3579 Arlington Ave, #500, Riverside, CA 92506
T. (909)247-7355

서민수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 2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저녁 7:30
리크레센타 주일예배 3부 오후 2:30
(2801 Montrose Ave, La Crescenta, CA 91214)

방주교회

1343 W. Valencia Dr. #G, Fullerton, CA 92833
T. (714)222-8746

장현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토요일참기교회 오전 8:00

버몬한인교회

702 Euclid Ave, Beaumont, CA 92223
T. (909) 809-7922 www.beaumontkoreanchurch.com

지동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새벽 오전 5:30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472-5979

윤 희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수요예배 EM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브림장로교회

3561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76-5331

신현우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생명과사랑의교회

3431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04-3004

곽태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생명의길교회

1201 Dorothy Ln, Fullerton, CA 92831
T. (657)252-0858

장동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6:00(토)

선민교회

3388 W. 8th St. #204, Los Angeles, CA 90005
T. (213)700-5638

임상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성경공부 평일 저녁 6:30

섬김의교회

12440 Firestone Blvd, Norwalk, CA 90650
T. (213)290-8129

이석기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성령과 함께 일하는 교회

2666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626)679-2115

김요한 담임목사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월-금) 오후 9: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30

성암교회

2551 Beverly Blvd, #D, Los Angeles, CA 90057
T. (213)220-6421

정찬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30
아침기도회(온라인) 오전 7:00(화-토)
기도모임 오전 11:00(화)

예심교회

7342 Orangethorpe Ave. Ste B-113, Buena Park, CA 90621
T. (562)315-6543

김지연 담임목사

주일예배 & Youth 오전 11시 [세대가 함께 하는] 오후 1시 30분
금요성경기도회 금요일 저녁 8시
청년부 주일예배 저녁 8시
수요(온라인)새벽기도 수요일 새벽 5시 30분

원웨이침례교회

6015 Palm St, La Habra, CA 90631
T. (213)249-5017

최주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00
수요일기도회 오후 8:1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은혜가샘솟는교회

10949 Zelzah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818)703-2292

표태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어린이 & Youth 오전 11:45

은혜샘교회

5471 W Cerritos Ave. Cypress, CA 90630
T. (714)337-0551

류연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주님의숲교회

1221 Candlewood Dr. Fullerton, CA 92833
T. (562)567-4573

김성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8:30 /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주백성교회

3400 W. 6th St. Suite 202, Los Angeles, CA 90020
T. (818)633-1241

양수용 담임목사

주일예배 New Start Mission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초대교회

1345 S. Bu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06
T. (818)434-1253

권태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나눔 코이 모임 오후 6:00(월)

카마리오열방교회

1369 Del Norte Rd. Camarillo, CA 93010
T. (805)419-6043

조 인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주일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

1101 E Ponderosa Dr., Camarillo, CA 93010
T. (213)700-3341 www.kfccc.com

류광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후 2:00
금요youth모임 오후 7:00
목요중보기도회 오전 10:00

커넥션교회

114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5
T. (714)366-9263

김용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및 성경공부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크레센타밸리 한인연합감리교회

2700 Montrose Avenue, Montrose, CA 91030
T. (323)774-2992

정하이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크로스교회

3663 W 9th St, #110, Los Angeles, CA 90019
T. (626)342-4366

오홍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요청시)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주일예배 3부 저녁 언제든(요청시)
주요예배 목요일 오후 8:00(환어) / 금요일 오후 8:00(환어)
파워워십 2번째주 금요일 오후 8:00(환어) / 4번째주 목요일 오후 8:00(환어)

하늘기쁨의교회

12104 Los Coyotes Ave, La Mirada, CA 90638
T. (213)215-0555

양국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중보기도회 오전 6:00

함께하는 주은혜교회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os Angeles CA 90057
T. (310)753-6169 tgodsdc@gmail.com

김요한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Global United Church

3333 Wilshire Blvd #325, LA, CA 90010
T. (213)221-9147 yohan72@gmail.com

양홍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기도회(주일) 오후 3:00

굿프렌즈교회

5721 Lincoln Ave #K, Cypress, CA 90630
T. (714)852-8485

강준민 칼럼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제 생애를 변화시킨 짧은 글들이 있습니다. 짧지만 좋은 문장은 쉽고 깊이가 있습니다. 어두운 눈을 밝혀주고, 깊은 깨달음을 선물해 줍니다. 제가 침체의 늪에서 힘들어 할 때 읽었던 짧은 글 중에 칼 메닝거의 글이 있습니다. 그는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제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사건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사건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건은 사실입니다. 사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꿈보다 중요한 것은 해몽입니다.

사건은 중립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건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실패, 실연, 실수, 고난, 고통, 역경, 시련, 거절당함, 버림받음 등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붙이는 이름이 우리가 사건

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우리가 붙인 이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직면한 사건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우리를 더욱 성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태도로 사건을 대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인생의 문제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똑같은 글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를 만듭니다. 성경 말씀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해석을 잘한다는 것은 뜻을 잘 풀어 주는 것입니다. 해석을 잘한다는 것은 관점을 새롭게 해 주는 것입니다. 해석을 잘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눈으로 사건을 보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해석을 잘한다는 것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해석을 잘한다는 것은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해석을 잘해 주면 몰랐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더욱 잘 알게 됩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새로운 차원에서 이해하게 됩니다. 해석을 잘 해주면 들리지 않는 것을 듣게 됩니다.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 마에스트로 금난새와 함께하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평화음악회에 참석했습니다. 윌트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있었던 음악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콘서트를 들으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금난새 지휘자의 음악에 대한 해석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음악을 소중히 여기고 좋아하지만 음악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 금난새 지휘자의 음악 해설을 들은 후에 그분이 지휘하는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들을 때 클래식 음악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감동과 울림과 기쁨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아는 것만큼 들립니다.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아는 것만큼 사랑하게 됩니다. 아는 것만큼 누리게 됩니다. 해석은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같은 음악도 그 음악을 잘 이해하고 들을 때 그 맛이 달랐습니다. 다시 한번 해석의 중요성을 깨닫는 밤이었습니다.

모든 좋은 문장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좋은 문장이 성경과 연결될 때 좋은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보다 해석을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요셉입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 갔습니다. 그는 상처를 받았습다. 그는 버림을 받았습다. 그는 고난의 수레를 타고 애굽에 들어갔습다. 하지만 그는 나중에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해석 중에 가장 탁월한 해석은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때 고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때 고통스럽던 과거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의 고난을 해석했는지 들어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 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창 45:5).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 이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하나님 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창 45:7-8).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창 50:20). 그는 고난을 만민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을 만민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했습니다.

사건에 대한 해석을 잘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용서했고, 풍성한 축복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해석(解釋)"이란 한 문 속에 "용서하다, 화목케하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해석을 잘할 때 용서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습니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라는 문장과 함께 제가 만난 문장이 있습니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반응이다." "사건에 반응만 하지 말고 창조하라." 곧 사건을 통해 새 역사를 창조하라는 것입니다. 사건에 대한 지혜로운 해석과 반응을 통해 풍성한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구봉주 칼럼

선을 넘다



구봉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선을 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도를 넘다 도가 지나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 간의 분쟁과 다툼이 생겼을 때, 한 쪽이 다른 쪽 사람에게 "나는 잃을 게 없는 사람이야 내가 반드시 당신을 망신 주겠어 당신이 얼굴 들고 못살게 만들어 주겠어"라고 했다고 가정해보십시오. 이 말

은 선을 넘는 말입니다. 이런 표현은 정말 역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원수지간이라 느낀 나머지 완전히 이성을 잃었을 때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정상적인 인간 관계에서는 할 수도, 해서도 안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잃을 게 없다"는 표현은 "나는 목숨, 명예, 체면 같은 거와 전혀 상관없는 막 나가는 사람이야 나는 당신과 함께 말할 각오가 된 사람이나까 조심해야 할 거야"라는 잔인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일종의 협박성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말을 한 사람이 평소 소에 잘 지내오던 지인, 또는 내가 항상 선하게 대하던 지인이라면, 우리는 "선을 넘었다 지나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아예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려 하거나, 다시는 보고 싶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넘지 말아야 할 규범적 도덕적 윤리적 선이 존재합니다. 말을 할 때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존재합니다. 지나치게 상대방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한 일입니다.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머리카락이 발견된다거나 할 때, 컴플레인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주방에서 비롯된 것인지, 서빙을 하는 직원의 실수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컴플레인도 정중해야 합니다. 고객평가 사이트에 올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서빙을 하는 직원분에게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은 바로 말씀의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는 일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는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를 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교회를 사랑하기보다 폄하하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기보다 이득을 취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종들을 존중하기보다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적대하고 다루고자 합니다. 이런 일들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아서, 영적인 현실을 아는 목회자의 눈에 아찔해 보입니다. "저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 무척 싫어하실텐데"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싶은 말과 행동만을 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조선일보 가판대에서 기독교일보 신문 보실 수 있습니다.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Western Ave., LA, CA 90006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기독교샵 www.Kidokshop.com 쇼핑이 기부가 된다! 기독교샵은 판매수익의 10%를 워브리지를 통해 어려운 교회들을 돕습니다.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media.com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inexo COLLISION CENTER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213.383.1230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영아의 정성이 가득...!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진유철 칼럼

나는 천국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인간이 살아가는 삶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눈에 보이는 Form, 즉 형태나 상황을 따라 살아가는 부분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Space, 정신이나 힘에 의해 살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형태나 상황은 늘 변하게 되어있습니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사람의 외모도 변합니다. 미국에 살다가 오랜만에 한국에 나가면 너무 변해있어서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변화로 인해 언제나 당황

스러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이 당황스럽고, 자신의 몸이 변하는 것이나 이웃이 바뀌는 것이 당황스럽고, 정치나 제도가 바뀌는 것이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않으려고 늘 헛된 것과 싸움하다가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이나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변하는 상황과 형태에 휘둘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내면에 하나님 주신 꿈을 붙든 요셉은 부잣집 도련님에서 보디발의 집의 노예가 되어서도, 감옥에 들어간 죄수가 되어서도 당황하지 않고 휘둘림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애굽의 국무총리라는 특별한 상황이 되어서도, 내면의 본질을 추구하기에 모든 변하는 상황을 다 누렸습니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 즉 믿음의 힘은 상황을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니엘도, 에스더도, 바울도, 보이지 않는 믿음의 힘을 가졌기 때

문에 모든 상황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벧전1:9)으로 주님 안에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이 땅의 삶에 휘둘림을 당하지 않으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세기의 기독교 변증가며 성공회의 성자인, C.S. 루이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요즘의 우리는 천국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합니다. 우리는 ‘그림의 떡’이라는 조롱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있든지 없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이 교리가 기독교의 모든 부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없다면 기독교는 거짓입니다.”라고 말하며 그는 평생 천국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C.S. 루이스는 “천국을 목표로 삼으면 그 안에서 지상도 얻게 되지만, 지상을 목표로 삼으면 아무 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 것을 먼저 추구해서는 곤란합니다. 첫 번째

것을 먼저 추구해야만 비로소 두 번째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역사를 더듬어볼 때 이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이 일한 사람은 누구인가? 천국을 가장 많이 생각했던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타락하여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천국을 생각하지 않게 되었을 때 기독교는 세상에서도 그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천국을 향하면, 세상은 덤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으로 향하면 천국도 잃게 되고 세상도 잃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늘나라 천국을 알기는 아는데 사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잠시 잠깐 살아야 할 이 세상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진짜 본향인 천국이 점점 더 작아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의 회복을 통해 이 땅에서도 승리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윤임상 교수의 교회음악 이야기

주 품에 (Still)



윤 임 상 교수
웰드미선대학교 음악학과장

“루”라는 소설로 베트남 보트피플에서 2018년 노벨문학상 최종 후보가 되어 일약 국제적 작가로 발돋움한 김 투이(Kim Thu'y, 1968 -)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녀가 한국 어느 미디어와 인터뷰를 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중에는 깊은 구덩이나,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지뢰들의 위협성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의 어머니는 항상 “혹시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하늘을 바라보라. 생의 마지막 시간을 깜깜한 굴이 아니라 푸른 하늘로 기억하라”라고 늘 자신에게 권유했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보내는 소중한 시간에 어둠이 아니라 빛을 보고, 땅굴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라는 현명한 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권유처럼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해 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

는 인생의 여정을 추구하는 것은 참 소중한 삶이라 여겨집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 “주 품에 (still)”에 담긴 가사를 멜로디에 담아 읊조리다 보면 이 김 투이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교훈한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로 우리의 눈을 고정하게 합니다. 이 곡은 힐송의 2003년 앨범 “Hope”에 수록된 찬양입니다. 이 “still”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유래한 말로 “let go” 또는 “release”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 그분이 주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입니다.

영국의 감리교 성경학자 아담 클라크(Adam Clarke, 1762-1832)는 이 “still”이라는 말을 해석하는 데 있어 우리가 거룩한 공의를 도발하는 것을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섭리의 경륜에 대해 혹 나의 원대로 되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46편에서 가르치고 있기에 이것을 바탕으로 가사가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46편은 히스기야 왕 시대 산헤립이 이스라엘을 침공 한 때로 환란 중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이 되셔서 그들을 진멸 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셨던 사실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

습니다. 그 가운데 10절의 말씀은 저자가 인간들이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버리고 모든 조건에서 하나님을 바라라고 권유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못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편 46:10)

이 “주 품에(Still)” 찬양의 멜로디는 우리의 감성을 강하게 자극하는 선율로 우리 가슴을 울리는 영감의 찬양이 됩니다. 이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내용의 중심은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힘든 순간이 올 때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권유를 담고 있습니다. 후렴구는 특히 자연의 현상을 빗대어 인생의 폭풍이 닥칠 때 하나님이 만물의 왕이심을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바다 물결이 솟아오르고 천둥이 울려 퍼질때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is storm 나는 너와 함께 이 폭풍 위로 날아오를 것이다.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아버지 당신은 홍수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I will be still know you are God 나는 여전히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애에 있어 경제적인 일들로, 건강의 문제로, 혹은 다양한 일들로 인해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그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곡히 아뢰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실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궁극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조건에서 하나님이나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며 그분만을 바라보며 공의의 하나님 되심을 아뢰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C. S. 루이스(Clive Stales Lewis, 1898-1963)가 쓴 책 “고통의 문제”를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활동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것입니다”라고 말 합니다. 우리는 모든 조건에서 그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그분만을 바라는 삶이 되어야 한다 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더이상 하나님을 수치스럽지 않게 하여 우리가 환란과 환페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혹시 천둥을 만났습니까? 이 때 천둥소리가 울리는 하늘을 또렷이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Still!”이라고 속삭이시는 그 세미한 그 음성을 사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배와 #삶을 #연결하다



원하트 청년 예배자 연합 수련회 '23

JOINT YOUNG ADULTS WORSHIP RETREAT '23

일시 | 7.28.금 - 7.30.주일 장소 | Azusa Pacific University (Duke Student Commons)

Retreat Speakers

(원하트 웹사이트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남현수 목사
- 시애틀 형제교회
- 바셀 캠퍼스 총괄 목사
- KOSTA 강사

윤만 대표
- New Connect Freight 대표
- 제 21차 한상대회 공동대회장

한태욱 대표
- 커피브레이크 US 한인 대표
- Business & Life Coach

랜디김 대표
- Los Angeles Praise & Worship 대표
- Producer/Arranger/Conductor

김도일 목사
- 세계대교회 담임목사
- Lighthouse Studio Director

원하트 워십
- Worship & Praise

등록비 안내

개인 및 일반 교회 청년 \$120
단체 (10명+) \$90
작은 교회 청년 \$40
(장년성도 전체 30명 이하)

등록방법

www.oneheart-usa.com/retreat
원하트 미니스터리 웹사이트의 수련회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단체 등록은 전화 문의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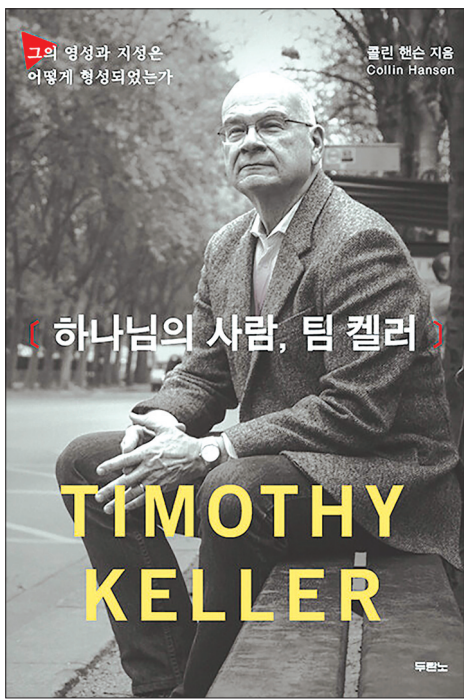
함께하는 단체 GBC 기독교일보 CBS TV WeBridge 교회연합

문의 213.347.5080 myoneheartministry@gmail.com www.oneheart-usa.com

ONEHEART MINISTRY

[크리스찬북뉴스서평] 수수께끼 같은 인물

팀 켈러 목사를 빛으시고 사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팀 켈러
콜린 헨슨 | 윤종석 역
두란노 | 420쪽

“충실하되 불완전한 인간의 이야기이자, 그가 그토록 사랑하여 일생을 바쳐 섬긴 하나님 이야기”

“21세기의 C. S. 루이스”라 불리는 지금의 팀 켈러가 되기까지! 그를 빛어낸 인물과 사건, 켜켜이 쌓인 삶과 사역의 나이트를 추적하다

팀 켈러는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다. 신학적 노선은 복음주의가 분명한 것 같은데, 가르치는 방식은 근본주의자가 아니라 자유주의자처럼 보인다.

그래서 콜린 헨슨은 팀 켈러가 근본주의와 자유주의 중간에 위치한다고 평가한다. 성경의 권위를 존중하고 성경의 정통 교리를 표방하지만, 독자의 다양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며 변증과 복음 전파의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는 것 같다.

예컨대 켈러는 웬만한 복음주의 저자가 인용하지 않는 상업영화와 드라마 대사를 종종 인용한다. 2013년 두란노에서 출간된 <일과 영성>을 통해 처음 팀 켈러를 접하고, 필자는 기독교 안팎의 방대한 자료를 인용하면서 성경적 원리의 핵심으로 끌고 들어가는 저자의 방식에 조바심이 났다. 한편 <팀 켈러의 기도>(두란노, 2015), <팀 켈러의 설교>(두

란노, 2016)를 읽을 땐, 뚜렷한 성경적 가르침을 풍부하게 맛보는 기쁨을 만끽했다.

콜린 헨슨은 팀 켈러가 설립한 TGC(복음 연합)의 콘텐츠 부문 부대표 및 편집장으로, 앨라배마주 버밍햄에 있는 비슨신학교 변증학 교수이기도 하다. 국내 소개된 헨슨의 책은 <교회의 재발견>(개혁된실천사, 2022) 등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 팀 켈러>라는 책을 통해 이번에 팀 켈러에 관한 호기심을 말끔히 해소해 주었다.

이 책은 일반적인 전기와 다르다. 인물의 탄생부터 현재 모습 혹은 임종까지 중요한 업적이나 사건을 다루기보다, 부채에서 밝힌 것처럼 ‘그(팀 켈러)의 영성과 지성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설명한다: “이 책은 지금의 팀 켈러를 만든 많은 사람과 책의 강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다(31쪽).”

팀 켈러는 근본주의자에게 유신진화론자라는 지적을 받으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를 유명하게 만들어 준 저작 <팀 켈러, 하나님을 말한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진실>(두란노, 2017)을 보면, 실제로 그는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한편 켈러는 교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무엇인지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분명하게 가르친다는 이유로 기독교 기관에서 주는 상을 박탈당하기도 했는데, 이를 보면 어떤 영역에 있어 그는 근본주의와 의견을 같이한다.

헨슨은 <하나님의 사람, 팀 켈러>에서 켈러가 가진 지성과 영성이 어떻게 지금까지 형성되었는지 흥미롭게 설명한다. 켈러는 종교학을 전공해 다양한 세계관을 이해하고, 가톨릭에서 루터교, 장로교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기독교를 경험했다. 그가 수학한 웨스트민스터, 고든 콘웰에서 그는 자유주의와 근본주의의 교수들의 영향을 두루 받았다.

특히 프란시스 웨퍼, R. C. 스프로울, 제이 아담스, 엘리자베스 엘리엇 등을 통해 하나님은 켈러가 복음주의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정통 기독교를 수호하는 일꾼이 되도록 빛으신 것 같다. 하지만 근본주의자의 시선으로 볼 때, 켈러의 복잡하고 다양한 배경은 그를 분명 근본주의와 거리가 있는 인물로 보이게 하기에 충분하다.

켈러는 IVF에서 일할 때부터 복음 전파의 사명에 열정적이었다. 하나님은 사명에 충성하는 켈러 부부를 통해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 대학 때부터 뉴욕 리더며 교회까지 켈러 부부는 가정을 개방하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초청했다.

그는 멋지고 폼나는 도시 교회를 지향한 게 아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는 곳, 사회적·정서적·영적으로 굶주린 이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최상의 본부로 도시를 선택한 것이다.

영혼을 설득하여 구주를 만나게 하려는 켈러의 분명한 의지는 그가 쓴 모든 책과 강단의 가르침, 설교, 교회 운영 방식 등에 모두 드러난다. 켈러는 주입식으로 가르치기보다 독

자/청자와 대화하기 원하고, 방대한 각주와 인용을 통해 그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그들의 세계관의 맹점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며 성경의 대안이 최고의 해결책을 보여준다.

한편 켈러는 근본주의자가 이웃의 필요에 무관심하면서 복음만 제시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래서 그는 참된 복음의 능력에 사회의 불의를 해소하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지만, 헨슨의 책을 통해 수긍할 수 있는 건 팀 켈러가 그만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붙잡고 여기고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께 인도하기를 갈망했다는 것이다.

아내의 크론병, 자신의 암 투병을 겪으면서도 팀 켈러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을 다했다. 모든 것을 혼자 아는 것처럼 교만하지 않았고, 독선적인 태도로 교회나 기관, 가정을 이끌지도 않았다(어떤 사람은 그래서 켈러의 더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했다고 한다).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통찰을 사용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겸손하게 행했던 켈러. 수천 명의 교인이 모였지만, 각 사람에게 말하듯 개인적이고 친밀하게 또 단호하고 분명하게 가르쳤던 켈러. 우리는 켈러의 모든 견해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



팀 켈러 목사 소천 후 홈페이지에 그를 기리며 게시된 사진. ©timothykeller.com

고 충성스럽게 주를 섬겼다는 사실에 모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콜린 헨슨의 책 <하나님의 사람, 팀 켈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빛으시고 사용하셨는지 발견하고, 그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독자를 빛으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기를 바란다.

또 켈러의 저작을 대할 때, 헨슨이 그려낸 켈러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 모두 팀 켈러를 빛으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그의 저작을 통해 더욱 친밀하게 경험하기를 소원한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분리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에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사야 40:13

He who forms the mountains, who creates the wind, and who reveals his thoughts to mankind, who turns down to darkness, and treads on the heights of the earth - the Lord God Almighty is his name. Amos 4:13

FI PLUMBING
213-434-8947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FI PLUMBING

저희는 고객님의 편안한 생활과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최고의 기술과 정직한 가격으로 고객님의 만족할때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ABOUT US:
24시간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플러밍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CONTACT INFO

CALL:
213-434-8947
flplumbing2022@gmail.com

MORE CONTACT INFO:

@FIplumbing
 @FIPlumbing

서성록, 한 점의 그림 | 프랑수아 뒤부아, '성 바돌로매 날의 대학살'

개혁교회 믿음과 가치, 삶과 함께 작품으로 드러낸 위그노

가톨릭 교회 잔혹성 상세히 묘사
프랑스 내 위그노 향한 핏빛 광란
소박하고 꾸밈없는 미술 양식으로
목숨 걸고 신앙 지킨 이들 기리다

프랑수아 뒤부아의 '성 바돌로매 날의 대학살(The St. Bartholomew's Day massacre)'은 1572년 프랑스에서 일어난 '바돌로매 날 대학살'을 주제로 하고 있다.

그림에서는 위그노(Huguenot)의 무수한 시신들이 거리에 방치된 가운데 무장한 왕실 호위대와 민병대의 폭력을 보여준다. 여기서 위그노란 가톨릭의 공포정치 속에서도 제네바 종교개혁자 장 칼뱅(Jean Calvin)의 신학을 따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프랑스 개신교인들을 일컫는다.

성 바돌로매 날의 학살은 16세기 말 위그노를 인정하지 않던 가톨릭 진영이 위그노 신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꾸민 멸절 사건이었다. 16세기 프랑스 개신교는 왕권을 옹호하는 가톨릭 교회에 반발하는 귀족, 개신교의 가르침을 적극 지지하던 부르주아 상공인, 그 외 농민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퍼져나갔다. 이에 위협을 느낀 가톨릭 세력은 이들을 제압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샤를 9세가 집권하던 때 섭정을 하던 실권자 까뜨린 드 메디시스(Catherine de Medicis)는 부르봉가의 젊은 나바르의 앙리(Henri de Navarre, 후일 앙리 4세로 등극)를 자신의 막내딸인 발르아의 마르그리트 공주(Marguerite de Valois)와 정략결혼을 성사시킨다. 결혼 날짜가 잡히자 위그노 지도자인 나바르의 앙리를 축하하기 위해 프랑스 전역에서 위그노 귀족들이 모여 들었다. 성대한 결혼식을 마치고 뒤이어 화려한 연회가 벌어졌다.

위그노 축하객들이 그들 앞에 엄청난 재앙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기까지 필요한 시간은 단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다. 샤를 9세는 비밀리에 개최한 국왕 참사회에서 위그노들의 살해를 계획했고, 숙청대상은 폴리니 장군과 그의 호위병들, 그리고 위그노 귀족들이었다.

왕실은 위그노 진영의 군사적 수장 폴리니 장군과 그의 수하들을 왕실의 안녕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판단하여, 이들을 모두 제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온 위그노 귀족들은 영문도 모른 채 왕실의 거대 음모에 무방비로 공격을 당했다.

학살은 루브르 궁전에 머물고 있던 위그노 귀족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파리의 평범한 위그노들까지 광범위하고도

무차별하게 자행되었다. 수많은 위그노들이 처형당하고 강물에 던져졌다. 앨리슨 그랜트(Alison Grant)와 로날드 메이요(Ronald Mayo)는 그날의 모습을 전하였다.

"무장한 군인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위그노들이 사는 집과 숙소를 치고 들어가 무방비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도망가려고 하면 칼로 찌르고 총을 쏘았다. 그들은 아이, 어른을 막론하고 살해하여 창밖으로 집어던지고 바닥에 쓰러진 사람을 칼로 찔렀다. 아직 숨이 붙어있는 사람은 길거리로 질질 끌고 가서 강물에 처박아버렸다." (『프랑스 위그노 이야기』, p.47)

가까스로 파리를 탈출한 프랑수아 뒤부아(Francois Dubois, 1529-1584)가 가톨릭 교도들에 의해 벌어진 살인의 잔혹성을 훗날 상세히 기록한 것이 바로 이 그림이다.

미술사에서 학살을 주제로 한 그림 중에는 프란시스 마야(Francisco Goya)의 '1808년 5월 3일', 오토디스(Otto Dix)의 '제1차 세계대전', 피카소(P. Picasso)의 '게르니카' 등이 있지만, 구체성과 현장감 측면에서 이 작품을 따라올 수 없다. 뒤부아는 대학살의 목격자답게 참혹한 살해 현장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그림에서는 특히 위그노들의 지도자 폴리니 장군(Gaspard de Colligny, 1519-1572)의 죽음을 자세히 다루었다. 화면 중앙 타운하우스에서는 기즈(Guise) 공작의 병사들이 폴리니 장군을 살해한 뒤 시신을 창문 아래로 던지는 장면, 그 아래로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는 기즈 공작의 모습과 시신 훼손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박효근은 뒤부아가 폴리니 장군의 죽음 장면을 평범한 위그노들의 학살당하는 현장 한편에 위치시킨 것에 대해, 성 바돌로매 대학살이 특정인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파리의 위그노 전체를 향해 쏟아진 핏빛 광란 자체였음을 강조하려는 의도였다고 분석하였다.

왼쪽 뒤편에는 루브르 궁전에서 나오는 모후 까뜨린 드 메디시스가 보인다. 그녀는 왕실의 학살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었는지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대학살은 파리뿐만 아니라, 파리의 소식이 전국으로 퍼져나가자, 8월 24일에서 10월 5일까지 위그노들에 대한 살해



프랑수아 뒤부아, 성 바돌로매 날의 대학살, 나무에 유채, 93.5x154.1cm, 1572-1584, 로잔 미술관 소장.

와 재산 약탈 등 살육의 광기가 프랑스 전국을 삼켜버렸다. 광포한 학살로 인해 파리에선만 3천여 명, 지방에서는 최소 5천명에서 3만여 명까지 정확한 숫자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대규모의 희생자를 발생시켰다.

이 소식을 접한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는 이날을 축제일과 희년으로 정하고 대학살을 기념하는 특별 기념주화를 발행하였으며, 조르주 바사리(Giorgio Vasari)에게 '성 바돌로매 날의 대학살' 제작을 맡기도 했다.

프랑수아 뒤부아의 학살 그림은 프랑스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강력하고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화가로서의 기량을 총동원하여,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동료 신자들에 대한 헌신을 보여준다.

뒤부아는 섬세한 붓놀림, 부드러운 색, 깊이와 분위기를 창조하기 위한 키아로스쿠로를 구사한 화가로, 생전에 많은 초상화와 기독교적 그림을 제작하였다.

그는 앙리 4세를 포함한 저명한 후원자들을 위해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교체될 때마다 조석으로 바뀌는 정책 때문에 그 역시 핍박을 피해가지 못했다. 개종을 거부할 경우 어김없이 투옥되거나 죽음을 당하거나 노예선으로 끌려가기도 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엄청 컸을 것이다.

더욱이 루이 14세에 의해 폰텐블로 칙령이 발표되자 프랑스의 위그노신자들은 크게 동요하여 30만 명이 고향을 등지고 망명길에 오르는 이른바 '위그노 디아스포라(Huguenot Diaspora)'까지 발생하였다.

뒤부아 역시 종교적 박해를 피해 이틀보다 앞서 영국으로 떠났고, 그곳에서 예술적인 작업을 계속했다.

전반적으로 뒤부아가 제작한 위그노 대

학살 작품은 예술적·역사적·문화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예술 작품으로 간주된다. 그것은 프랑스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순간에 대한 역사적인 시각적 표현을 제공하며, 사람들은 이 작품을 볼 때마다 위그노신자들의 불굴의 신앙심, 종교적 극단주의의 위험과 종교적 관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하게 된다.

박해와 순교, 매순간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서 위그노 신자들은 특히 16-17세기 개신교의 예술적 발전을 이끄는 중추적 역할을 했다. 위그노 예술가들은 그들의 믿음과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그들의 기독교적 메시지를 삶으로 보여줬다. 또 이 작품에서 보듯 예술을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소박하고 꾸밈없는 위그노 미술 양식은 성경의 중요성,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 종교적 이미지와 장식의 거부를 강조한 개혁교회의 가치를 반영했다.

이러한 예술 양식은 가톨릭 교회의 화려하고 장식적인 양식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으며, 그들의 경험과 신념을 반영하는 작품은 후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프로테스탄트의 주요한 문화적·예술적 유산으로 남아 있다.



서성록 교수
안동대 미술학과



미주 기독교일보 후원

한국 헤민병원
VIP종합검진 **초특가 이벤트**

“한국 방문 한번으로 보고 싶은 가족과 친구도 만나고 건강도 잡으세요”

검진내용

- CT 촬영(뇌, 폐 선택)
- 수면 대장내시경
- 종양표지자 암검사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 수면 위내시경
- 특수 초음파 검사
질, 갑상선, 전립선, 유방(27세 이하)
하복부(간장, 비장, 췌장, 담낭, 신장)
- 방사선 촬영(유방, 흉부)
- 골밀도
- 70개의 기본검사

검진비용

~~\$950~~ **\$440** (환율변동)
\$100불 할인예약증
\$340 검사당일 납부
쿠폰발행일로부터 3년 유효
(양도 양수가능)



새 생각, 새 의술
헤민병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85 지하철 2호선 구의역 하차 4번 출구방향으로 직진 신호등 건너 150m 도보
자세한 내용은 213-341-5123로 문의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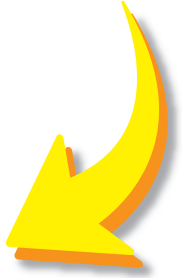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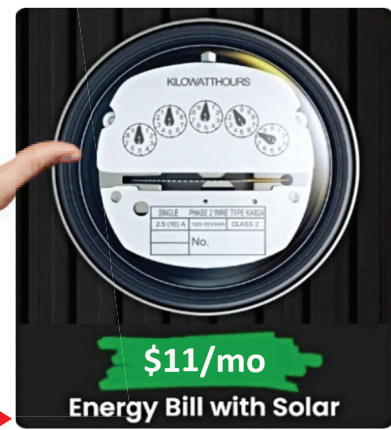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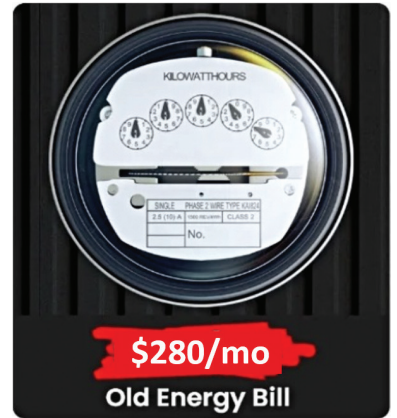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특혜 / 30% Tax Credit

**2023년
대박**

전기세가 11달러?!



SCAN ME

**100%
Made in
USA**



Lic#854389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Solar?

(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가?)

- ✔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 ✔ 설치비 없고, **Zero Down**
- ✔ 전기료 50~70% 절감 (전기차 사용도 무료)
- ✔ **EV Car Outlet Free**

***** 돈 한푼 안 들이고 전기세 50~70% 절감 *****

***소개 해주신 분께 시공 완료 후 500 불을 드립니다**

Why BTS Solar?

(왜 BTS 솔라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 ✔ 전기세 **50~70% 절감효과**
- ✔ 별도의 설치비 없고 **Zero Down**
- ✔ 안정적인 미국 시장 점유율 **1위 패널** 사용
- ✔ 모든 제품군 (패널, 인버터, 레일, 케이블) **25년 Warranty**
- ✔ 남가주 전 지역 **2~3달 안에 설치** 가능

• 태양광 설치 효과

태양광 설치 시 얼마나 많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지는 첫째, 얼마나 많은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지, 둘째, 패널을 설치할 지붕의 방향과 각도가 태양광을 받기에 얼마나 적절한지 등에 달려 있습니다. 드론을 통해 현장 실사하듯 에너지 효율 체크합니다.

• 저렴한 맞춤형 파이낸스

별도의 담보도 필요없이 크레딧으로만 설치되며 가장 저렴한 Payment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설치 후 1년 동안은 100% 태양광 설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1년 후부터 Payment가 시작됩니다. Payment가 시작되어도 현재 전기료의 70~80%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안정적, 효율적 제품으로 신속 정확한 시공

한국인 팀장이 주축이 되어 고객과 소통하며, 최고의 설치 노하우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효율적인 제품만을 선별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시공합니다.

www.btssolardesign.com

CELLSPARTNER

TALK BTSSolar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213.500.80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714.702.0151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세요.

1. 문의 전 전기세 고지서를 준비해주세요.
2. 전기세 고지서 사진을 찍어서 **Text Message** 혹은 카톡 주세요.
3. 메시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